



www.maggun.com

2017.06 vol.75

#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 Act for Justice

-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남대진** 운영위원장 · 아리랑인력거 **이종수** 일꾼
- 군산의 예모습 119길 사진전 · 교사 **정은균** · 대한포도주장미연합회
- 홍콩반점 **고동영** 사장 · 군산근대소리박물관 **이종간** 관장 · 째보선창
- (사)가건모 군산지부 **장은희** 지부장 · **임성식** 전 군산시수협조합장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GO TO THE  
KUNSAN

# Now

##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같이 나눈 70년,  
가치 더할 100년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중  
전국유일 PRIME 사업 선정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전국유일 4개 분야 최우수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5년 연속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안녕하세요!! 스페셜 오토리스 군산지사  
대표 **이영근**입니다.

세금, 보험 걱정없이 한달에 한번  
**렌트비**만으로~ **자동차 걱정 끝**~  
지금 상담 받아 보세요.



더 경제적인  
**신차 장기렌터**

|          |          |          |
|----------|----------|----------|
| No. 소유비용 | No. 유지보수 | 유류비 절감   |
| No. 초기비용 | No. 사고처리 | 찾아가는 서비스 |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차종 신차판매 전문**



|           |          |          |
|-----------|----------|----------|
| 초기비용 절감   | 건전한 재무관리 | 신차 교체 용이 |
| 100% 비용처리 | 보험의 지속성  | 간편 회계 처리 |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신차 리스, 장기 렌트, 할부구매

**이영근 010-6710-0854**  
**063-453-0854**

근대군산 1930  
시간여행  
Modern History  
Time Travel  
to Gunsan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할망해 줄꺼야



이번에 군산에 가면  
빵도 먹고,  
짬뽕도 먹고,  
간장게장도 먹고,  
콩나물국밥도 먹고,  
호원사진관하고 은파호수공원하고  
철길마을에 가서 사진도 찍고,  
새만금을 미친듯이 달려보고,  
일본식가옥에서 조상의 아픔도 느끼고,  
근대역사박물관도 구경할거야.  
그리고,  
잠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잘거야.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좋은 숙박에서 시작됩니다.  
군산에 오시면  
편빌리지로 연락 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비잠 게스트하우스  
010-8436-8810  
군산시 구영3길 34-2



햇살이 가득한 집  
010-6678-6759  
군산시 거석길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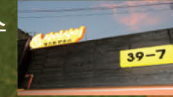
꿀잠 게스트하우스  
010-4489-2663  
군산시 구영3길 67



레마 게스트하우스  
010-4463-1563  
군산시 중앙로 205



사이사이 게스트하우스  
010-5401-1959  
군산시 구영6길 64



게스트하우스 이웃  
010-4048-8811  
군산시 구영1길 11-2



전국 최초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군산편빌리지협동조합**  
www.funvillage.kr 063-446-8830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측근 패거리만을 위한 정치로 나라를 분탕질하고 국민의 편을 갈라 이념 대결을 부추기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정권은 결국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의 촛불 함성에 굴복, 권좌에서 쫓겨나 구속되기에 이르고 추한 모습으로 퇴장하고 말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국민의 평화적 힘만으로 민주 혁명을 이뤄낸 오늘 의 대한민국을 보며 세계는 놀라움의 찬사를 보낸다. 국민을 섬기기는 커녕 이겨보겠다는 오만함이 자초한 불행이다. 이를 보며 중국 전국시대 말 순자(荀子)의 책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족재주 수족복주)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니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덮어버리기도 한다'는 뜻이다. 적폐청산으로 올바른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후보는 2위인 보수 후보와 무려 558만 표차를 기록, 제19대 대통령에 올랐다.

당선되자마자 문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가히 파격적이었다. 군림의 권위가 아니라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격의 없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탕평 인사로서 후보 시절 내걸었던 여러 민생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며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마치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느낌"이라거나 "뉴스 시간이 기다려진다." 고도 했다. 국민을 챙기기는커녕 그 목숨들을 하찮게 여기고, 정권에 대한 비판자는 모조리 적으로 간주, 갖은 수단으로 재갈을 물려 억압한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몇몇 대형 의혹사건들이 이제는 철저한 조사로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큰 듯하다. 그 기대감은 무려 88%라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 해서 안심은 금물이다. 속절없이 정권을 빼앗긴 보수 측의 저항과 반발이 결코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이전 보수 정권의 실패가 고스란히 더 부각되는 비교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자신들의 과오는 생각지 않고 무슨 꼬투리든 잡아 방해하고 협상하려 들것이고 달리 방법이 없다보니 이미 유통기간이 지나버린 것이 확인된 지긋지긋한 종북 물이 또한 계속 될 것이다. 대통령의 성공은 철저히 국민의 신임위에서 판정난다. 자신과 패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섬길 때 어느 국민이 박수를 치지 않겠는가.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부패의 사슬과 불균형, 불공정,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적폐가 청산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모처럼 주권자로서의 자존심을 찾은 느낌이 든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http://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mailto: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jay0810@hanmail.net](mailto:jay0810@hanmail.net) Fax\_ 063) 911-1856

협찬업체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063-464-2005~7\_ 숙박권  
오죽 063-464-5625 \_ 식사권  
하이트진로 063-453-5111\_ 맥주  
미즈커피 063-446-2867\_ 음료권  
바나나팩토리 070-4274-8839\_음료권  
커피점빵 063-468-1776\_ 음료권

\* 군산 하이트 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받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미성년자 불가)하시고, 매거진군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     |     |     |     |     |
|-----|-----|-----|-----|-----|
| 허윤미 | 오은아 | 김지윤 | 신성아 | 김민경 |
| 문성영 | 허태민 | 한현경 | 서정원 | 심혜민 |
| 한남이 | 이은일 | 유상훈 | 박정은 | 이승미 |

1945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Thanks to rice and nature. Since 1945 bakery that considers your health. The beginning of a healthy day is baked here! The place where it gives a stir in one's heart By Lee Sung Dang Bakery.

LEE SUNG DANG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해방과 함께 시작된 ‘이성당’의 내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건강한 빵

이성당은 자연과 쌀에 감사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항상 노력합니다.

이성당의 대표적인 빵은 앙금빵과 야채빵이 있으며,

2006년 부터는 쌀과 빵을 연결하는 일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블루빵'으로서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겐리치' 제과점에서 전수 받았습니다.

현재에는 효모종을 이용한 다양한 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LEE SUNG DANG

대한민국에서 가장오래된 빵집

주문및 상담 . 전화 063-445-2772, 080-445-2772(무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12-2



배포처

매거진군산은 매달 초 1~3일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원도심\_신포우리만두 063-445-0389  
골드북권방 063-445-1212  
던킨도너츠 063-443-7887  
미다원 063-462-2132  
우리문고 063-445-0031

나운동\_비달헤어 063-461-7015  
한길문고 063-463-3109

은파\_파라디소페르두또 063-471-8525  
유원지\_산타로사 063-462-9062  
뮤직포유(REH HAT) 063-466-8202

기 타\_군산역  
군산CC 063-472-3355  
커피집빵 063-468-177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43-8283  
고우당커피숍 063-443-1042  
아리올 웨딩 063-453-3200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http://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 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mailto:jay0810@hanmail.net)



Vol. 75 | 2017.06

magazine  
gun

|           |     |                                                                |
|-----------|-----|----------------------------------------------------------------|
| 발행인·편집장   | 이진우 | <a href="mailto:jay0810@hanmail.net">jay0810@hanmail.net</a>   |
| 디 자 인     | 박유경 | <a href="mailto:282pyk@hanmail.net">282pyk@hanmail.net</a>     |
|           | 진현태 | <a href="mailto:gkfp3456@naver.com">gkfp3456@naver.com</a>     |
|           | 김동섭 | <a href="mailto:nan901125@naver.com">nan901125@naver.com</a>   |
| 주 간       | 오성렬 | <a href="mailto:poi3275@naver.com">poi3275@naver.com</a>       |
| 시 민 기 자   | 조종안 | <a href="mailto:chongani@hanmail.net">chongani@hanmail.net</a> |
| 상 임 고 문   | 이희찬 | <a href="mailto:lhc-good@hanmail.net">lhc-good@hanmail.net</a> |
| 시 민 기 자   | 배지영 | <a href="mailto:okbjy@hanmail.net">okbjy@hanmail.net</a>       |
| 시 민 기 자   | 이생곤 | <a href="mailto:grandlee@kmni.co.kr">grandlee@kmni.co.kr</a>   |
| 시 민 기 자   | 심권택 | <a href="mailto:sys2091@daum.net">sys2091@daum.net</a>         |
| 컬 럼 니 스 트 | 온승조 | <a href="mailto:gsforum@hanmail.net">gsforum@hanmail.net</a>   |
| 컬 럼 니 스 트 | 이영진 | <a href="mailto:younggeen2@naver.com">younggeen2@naver.com</a> |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포인쇄 (063)471-1318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http://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집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 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 최고의 사료원료만을 취급합니다

미주에서 직수입하는  
모든 종류의  
동물사료원료를  
최저가격으로 공급합니다.

## 취급품목

알팔파 건초 (Alfalfa Hay)  
티모시 (Timothy Hay)  
톨페스큐 (Tall Fescue Straw)  
애뉴얼라이그라스 (Annual Ryegrass)  
페레니얼라이그라스 (Perennial Ryegrass)  
클라인그라스 (Klein grass)  
오차드그라스 (Orchard grass)  
연맥 (Oaten)  
전지면실 (Cottonseed)  
비트펄프펠렛 (Beet Pulp Pellet)  
툼밥

**finefeed**

We bring the finest feeding.

파인피드

54140 전북 군산시 나운안1길 9-5, 2층 202호

T 063-471-8837 F 063-471-8836 [www.finefeed.co.kr](http://www.finefeed.co.kr)





새만금살리기  
전북도민행동 준비위원장  
남대진을 만나다

# ‘무엇이 군산을 위한 행동인가’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위원장님의 간단한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1957년 정유생이니가 올해로 환갑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전북 익산이고요, 아이들은 다 자라서 외지에 나가 있고 부부 둘이서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군요. 지금 활동하는 몇 개의 단체가 있지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는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이고요 이 단체의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새만금살리기 전북도민행동'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비응도변영회에 몸담고 계시면서 환경활동을 시작하시고, 새만금문제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현재 새만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 문제로 다시금 새만금이 또 언론에 등장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환경운동가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환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려서 고향을 떠났고 고학으로 신학 공부를 마치고 1989년 경기도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2년 간 목회를 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런 목회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싫어하더군요.

요. “그렇게 해서 언제 교인 모으고 건물 짓겠냐고.”

2002년 2월에 예배당을 폐쇄하고 전주로 내려와서 다음날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른바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군산으로 오게 되었고, 2008년도에 우연히 비응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응도 초창기에 11명의 상인이 모여서 '비응도변영회'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어 관광객들이 밀려오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지자체와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을 고쳐

보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러는 저를 공무원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더군요.

땅들이 만들어지고 기업유치라는 명분으로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서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여름 폭우로 비응도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군산시에 47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다는 것이었습니다. 붕괴의 원인이 부실한 도로와 하수관거 공사라는 것이었죠. 1년을 쫓아다니면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싸워서 결국 소송을 막아내고

회사 책임자가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시에서는 저를 미워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를 도왔는데, 시가 미워하니요. 그런데 '새만금'이란 땅은 언제 매워지는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새만금입니다. 1987년 노태우 후보에 의해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심하게 말하면 재앙이고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극입니다. 1억 2천 만평의 새만금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립토 7억㎡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정부에서 아무리 많

은 예산을 내려 보내도 가져 올 흙이 없어요. 지금까지 들인 3조원의 새만금 예산은 만경강과 동진강 정비 사업에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어민들이 사라진 다음 내측 바다에서 올리던 수입 4천억 원 씩이 매년 사라지고 있어요. 20년 만 잡아도 8조원이 사라진 겁니다.

현재 물이 빠진 곳은 최악의 황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주변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흙이 없으니 전국의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석탄재를 다 가져다가 새만금을 매립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음모가 만들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1



년에 850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는데 발전사 측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처리 방법이 없는 것이고, 농어촌공사는 돈 안 들이고 땅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새만금개발청은 쉽게 땅을 만들어내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30년 동안 새만금은 전북도민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재앙덩어리로 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조기개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물 밖에 없는 곳을 ‘두바이’도 만들고 ‘실리콘밸리’도 만들었다가 지우더니 이제는 또 도박장을 주 사업으로 하는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군산 쪽에 산업단지 두 개 공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만들어서 100년 간 공짜로 땅을 준다고 해도 현재 두 곳 외에는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의 계산이 없습니다. 매립토 확보 방안도 전혀 없습니다. 몇 년 후에 완공이 되어서 전북도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이라는 예상 자체도 없습니다. 드러난 땅은 사막이 되었고 호수의 물은 완전히 썩은 5-6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질 개선을

시켰다고 가정 했을 때의 또 다른 문제는 전북도내 어느 곳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 폐수가 새만금호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요. 그 뿐이 아닙니다. 새만금 자체에서 생산되는 폐수까지 이곳으로 흘러오게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조기개발”을 부르짖는 것은 사기극이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새만금을 해결하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만금 전체에서 농지의 비율이 30%로 줄었기 때문에 굳이 땅 만드는데 돈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막연한 매립 사업이 아니라 관리수위를 조정해서 매립 면적을 줄이고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해수를 유통하면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장차 바다와 갯벌이 복원되어 수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복원 된 갯벌에서 조개를 양식하여 재래시장과 구 도심권에 조개요리 특화지역을 조성한다면 군산의 경제에 큰 이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조력발전소를 통해서 미세먼지 없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은 이제 새만금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군산시의 큰 이슈였던 전북대병원이 백석제에서 사정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이전에 관해 위원장님의 노력이 대단했던 걸로 압니다. 전후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전북대병원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의 일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백석제에서 멸종위기2종인 독미나리 군락을 발견하고 보존방법을 찾는 중에 그곳이 전북대병원의 부지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환경과를 찾았는데 이미 그들은 독미나리군락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미나리를 확인한 전 환경과장이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과 시장, 심지어는 지역 국회의원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 새우며 백석제를 고집했습니다. 정밀 식생조사를 요구했더니 같은 식구인 전북대교수가 허위조사 발표를 했고, 시장은 예술의 전당에 관련단체와 지지자 천여 명을 모아놓고 “죽어도 백석제”를 외쳤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고 수없는 기자회견과 집회, 일인시위 등을 하면서 우리는 정밀조사를 자체적으로 했고 백석제는 독미나리 뿐 아니라 식물과 조류 천연기념물 등의 보고로 전국규모의 1급 습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시에서는 승복하지 않고 기업체를 동원하여 플래카드로 도배질을 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왜곡된 논리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관련단체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모함하고 심지어는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저들이 왜 백석제만을 고집하는지 알고 싶어서 인근의 토지주들을 조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기업체 대표가 주변의 노른자위 땅 1만1천 평을 구입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입 당시 3억 3천만 원이 그들의 계획대로 병원이 들어서고 개발되면 1천1백억 원의 가치를 가진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즉 백석제로의 전북대병원은 거대한 이익을 꿈꾸는 투기꾼들의 집합장소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저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경비를 부담하며 조사에 응해 주신 전국의 전문가들과 고소를 당하면서까지 보도를 해 주었던 언론인들 그리고 환경 단체들이 함께 일궈 낸 성과였습니다. 환경부까지도 군산시의 편을 들어 주는 상황에서 얻어 낸 성과는 전국에서도 유일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부지 변경 불가’를 외치던 국회의원이 부지 변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부지 이전을 자신의 성과라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때문에 병원 건립이 늦어졌다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꼼수를 부리지 않고 바른 선택을 했다면 이미 병원은 완공 되었을 것인데 그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추진됐던 카지노, 즉 도박장이 지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속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정치인이 군산과 새만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은 개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반대론자들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려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땅이 없는데 무슨 카지노가 들어오겠습니까?

군산의 또 다른 이슈들, 즉, 송전탑, 화력발전소 등에 관해 우리 시민들이 알아할 것들이 있다면?

송전탑,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지금도 주민들은 노선변경을 위한 수요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발전사들이 새만금의 빈 땅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무차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졌고 생산된 전기를 밖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허가권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밀어붙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올해에 또 우드펠릿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신설이 비응도에서 이루어 집니다. 연료가 목재라고 하지만 사실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는 남아돌아서 가동을 중단 한 발전소들이 많은데도 무엇 때문에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롯데아울렛 역시 우리가 막아야 할 거대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려운 시절에 개발논리를 앞세워 밀어 붙이던 정권들에 상당부분 세뇌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개발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는 것이니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발되면 원주민은 쫓겨나고 대형 점포가 들어오면 소상공인은 폐점하고 오히려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을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가 선출한 정치인이 잘못하면 가차 없이 끌어내리고 무엇보다도 선거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현실정치에 참여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 자리에서 소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 간단한 소회와 전망을 이야기해주신다면?

18대 대선을 마치고 바로 롯데마트 앞에서 부정대선과 국정원개입 진상조사를 위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시국미사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지만 저는 이미 2013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죠. 물론 광화문에도 갔고 지역에서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하고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을 마치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군요.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책임자를 찾지 못해서 가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최소한 현재의 지방정부보다는 더 나은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선출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물 사료를 취급하시는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은 있나요?

하하. 어쩌다가 사료가게의 동업자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다지 동물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키우다가 “그들이 죽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업도 겸하신다고 하셨는데, 왠지 친환경적으로 건축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친환경적’인 자재와 공사는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목재와 황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업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에게 최대한의 설명을 하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하는 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군산에 훌륭하고 저명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저 같은 소시민에게 지면을 내 주신 매거진군산에 감사를 드리며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우상회  
전북 군산시 구시장로 45-1  
전화 063-445-4542



# Arirang Rickshaw



좌측 조카 박승호씨, 우측 이종수 대표

## 낭만 관광 아리랑인력거

으뜸일꾼  
이종수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일제의 잔재인 근대역사문화를 콘텐츠로 특히 주말이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군산에 원형 그대로의 인력거(人力車)가 등장했다. 컬처앤모빌리티의 CEO로서 '아리랑 인력거'를 브랜드로 내걸고 이 사업을 시작한 이종수 대표는 명함에 적은대로 관광객을 태우고 자신이 손수 인력거를 끄는 '으뜸일꾼'을 표방한다. 본래 경기도 남양주 생인 그는 처가 가 익산인 관계로(부인은 W대학 교수로 재직 중)우리 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언젠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안에 전시된 인력거를 보고 영감을 얻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는 직장 퇴직 후 일본을 방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력거를 두 대를 수입하여 지난 4월부터 관광객을 운송하며 원도심 일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 인력거의 유래

인력거는 1869년 '다카야마 고스케'라는 일본인이 서양에 갔다가 마차를 보고 온 뒤 이를 응용하여 최초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후 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파, 한국에는 1883년 박영효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시절,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군산에서도 인력거가 주요 운송 수단으로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해방 무렵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 사업 배경

이후 인력거는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을 뿐 현실에서는 사라진지 오래인데, 군산은 아직 원형 그대로의 일제 잔재가 많고 이를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게는 인력거야말로 일제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내다보였을 터이다. 현재 인력거는 본고장인 일본에서조차 거의 자취를 감춘 지 오래여서 제작사도 불

과 몇 군데 남지 않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데, 이 대표가 구입한 것은 동경에서 제작한 아사쿠사 제품으로 대당 1,6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형 제품이다. 따라서 두 대 값만 해도 3,200만원에 컨테이너 운송비 800만원까지 하면 4,000만원에 달해 상상 외로 거금이 투자되었다. 인력거의 수요가 끊긴 것은 뭉니 뭉니 해도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발달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생산된 제품의 수명이 평균 20년에 달해 재구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또 한 이유로 보인다.

인력거는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와 역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작품으로서 시트(좌석)와 손잡이 부분 등은 일본산 목재로 제작, 견고하면서도 유려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인력거의 자체 중량은 150kg으로서 운송 중량에 제한은 없으나 보통 체격의 성인 2명, 아이의 경우는 3명 정도가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중량이다. 이 대표는 수명이 2년 정도인 타



이어 교체를 비롯하여 정비 기술도 아예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들어와  
웬만한 고장은 본인이 수리할 정도인데 워낙 튼튼하게 제작된 제품이  
라서 특별히 고장 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관광객 운임

10분 : 20,000원(2명)

20분 + 10분대기 : 40,000원(2명)

체험코스 : 10분

(왕복) 일본인가옥-고우당-테디베어박물관-초원사진관-일본인가옥

(편도) 일본인가옥에서 해망굴 또는 탑승자가 원하는 장소

\* 여유만만코스 : 40,000원(약 20분 + 사진촬영포함 대기 10분) 운행

지도 상 어느 장소나 가능

\* 동국사는 진입로가 협소해 입구까지만 운행



**진짜 인력거 체험**

구름을 타는 듯한 탁월한 승차감과  
높은 눈높이를 경험해보세요.

**운행코스 및 요금(신용카드 결제가능)**  
 잠깐탑승(■분) - ₩10,000/2명  
 10분 탑승 - ₩20,000/2명  
 20분 탑승+10분대기 - ₩40,000/2명

초원사진관 또는 히로스가옥에서 탑승  
**체험코스 (10분)**  
 <추천코스>  
 (왕복)신흥동 일본식가옥-고우당-테디베어박물관-초원사진관-신흥동 일본식가옥  
 (편도)신흥동 일본식가옥에서 해망굴 또는 고객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여유만만코스 ₩40,000(약20분+사진촬영 포함 대기 10분)**  
 - 운행지도 상 어느곳이든 갈수 있습니다.  
 (동국사는 길이 협소해 입구까지만 운행합니다)  
**인력거폰 : 010-9013-1054**

NAVER 아리랑 인력거 검색 및 예약가능  
 아리랑 인력거를 눌러주세요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한 대를 끌고, 또 한 대는 조  
카인 박승호 씨가 맡고 있는데 대기 장소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흥동 일본인(히로쓰)가옥 앞이다. 사실  
군산의 관광객은 거의 주말에만 몰릴 뿐 평일에는 한  
산한 편이고 아직 사업 초기여서인지 수요는 많지 않  
은 편이다. 요금은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본  
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서 전적으로 힘든 육체노동  
에 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  
업 추이에 따라서는 향후 재조정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을 누비고 싶은 '군산 아리랑인력거'

이 대표는 조만간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국 투어  
영업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거를 운

송하는 게 큰 문제여서 최근 1톤 탑 차도 구입했다.  
탑 차 외관에 "군산에서 왔습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을 순회할 생각이다. 따라서 영화, 드라마  
에서나 보던 인력거를 직접 타며 체험해보는 것도 호  
사자들에게는 호기심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다. 또한 인력거와는 별도로 전기자전거를 구입, 새  
만금 투어와 함께 전동스쿠터의 렌탈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아리랑인력거'가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낭만과 추억을 새롭게 체험케 함으로써 우  
리 군산이 명실상부한 근대역사문화도시로 가꾸어나  
가는 데 큰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리랑인력거'  
 군산시 구영7길125(영화동)  
 이종수 대표 010-9013-1054



# 김수미가 기억하는 군산 골목길, 여기 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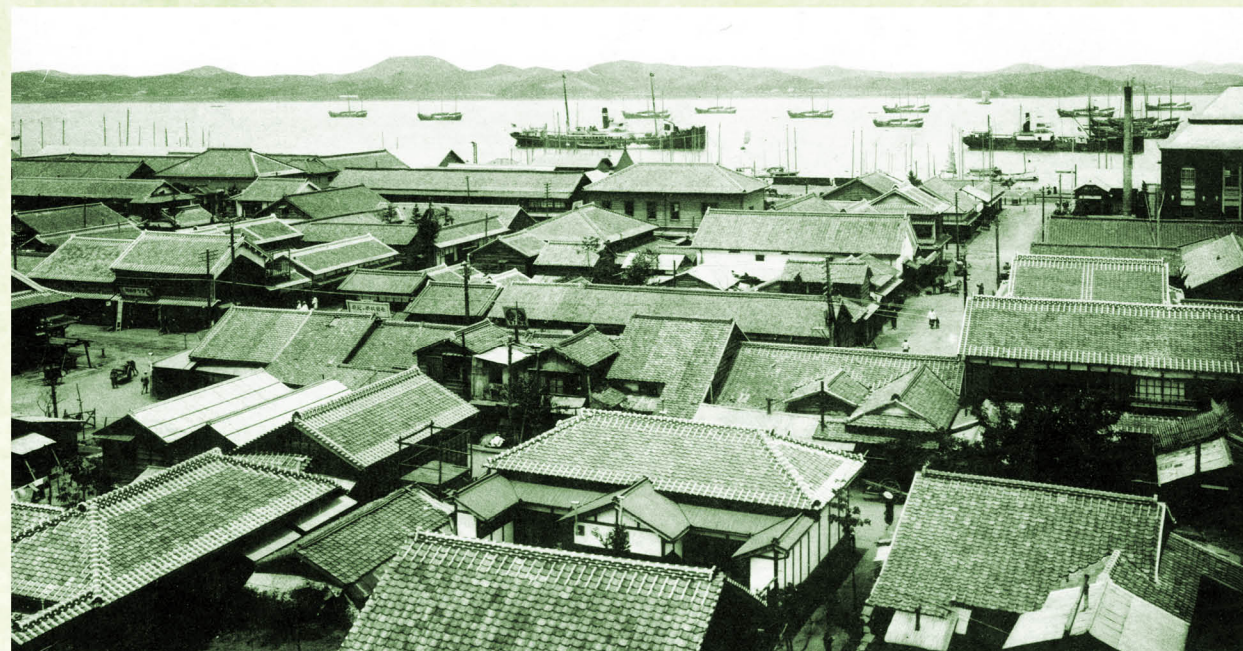
군산 예깊미술관에서 열리는  
<119 길> 테마사진전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저는 군산시 신흥동 산동네 '꽃 많은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때는 월가닥이었죠. 군산역에서 미원동 모래집, 중화제재소, 차약방, 미원파출소, 신호약국, 미륵주조장, 산 끊어진 고개, 유과꼬시장(명산시장), 백약국, 구암병원, 홍약국, 백화양조를 지나면 군산여고가 나옵니다. 그 군산여고 뒷동네가 신흥동이죠. 유과꼬시장은 저희 어머니가 고개가 뺄뺄어질 만큼 열무를 이고 나가 팔던 곳이었고...."

20년쯤 됐을까. 인기탤런트 김수미씨가 어느 라디오 프로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진행자와 나눈 고향 이야기 중 한 대목이다. 그의 애향심이 남다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하지만, 코흘리개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다니며 뺏던 거리(구 군산역~신흥동) 간판들을 막힘없이 나열하다니 놀라웠다. 김수미 씨 가슴에 색동 조각보처럼 아름답게 수놓인 추억의 편린들. 오늘의 시선을 차약방(車藥房)에 맞추고 시간여행을 떠나본다.

▼ 군산시 미원동에 있었던 차약방(1950년대)



▲ 부잔교 설치 이전 군산 전경(1930년 전후).

## 스토리가 있는 <119 길> 사진전

항구도시 군산의 근대사가 오롯이 담긴 테마 사진전(5월 23일~6월 23일)이 군산시 명산동 예깊미술관(대표 임성용)에서 열리고 있다. 철길, 물길, 오르막길, 골목길, 저승길 등 다섯 개 테마로 엮은 이번 사진전 주제는 <119 길>이다.

군산은 1899년 5월 1일 개항하였다. 지금부터 118년 전 일이다. 그럼에도 사진전 타이틀을 <119 길>로 정한 이유는 전시되고 있는 사진 400여점 중 개항 1년 전 군산 원도심권이 담긴 그림지도부터 최근 모습까지 군산의 119년 역사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개 테마 중 <철길>은 군산선, 옥구선, 내항선, 재보선창선, 우풍화학선, 페이퍼코리아선(철길마을), 화전선 등이다. <물길>은 금강, 군산포, 죽성포(일명 세느강), 경포, 둔덕천, 미제천 등이다. <오르막길>과 <골목길>은 군산 원도심권 산동네와 골목동네가 담겼다. <저승길>은 군산 지역의 상가(喪家) 풍경과 상여 나가는 모습 등을 소개한다.

일제는 조선의 철도를 만주와 일본을 잇는 중간 고리로 삼았다. 드넓은 소비시장이자 물산 공급지인 만주를 일본과 연결하는 것이 조선 철도의 첫 번째 사명이었고 승객과 물자 유통은 그다음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 사방으로 뻗어 나간 경인선, 경부선,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 등 주요 철도 종착역은 항구나 국경도시였다.

특히 일제가 서둘러 1912년에 개통한 군산선은 곡식을 실어나르기 바빴고, 군산 부두는 정미된 쌀을 선적하느라 밤낮없이 분주했다. 군산항은 비옥한 호남평야에서 거둬들인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전진 기지였던 것. 거리에는 현물 없이 쌀투기를 일삼는 미두꾼이 넘쳐났고,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에 흠린 일본인들은 '고메노 군산!'(쌀의 군산!)을 외쳐댔다.





임성용 대표



쌀가마가 발디딜 틈도 없이 쌓인 군산항



처음 공개되는 개항 전 군산 그림지도

전시장 사진 중 개항 1년 전 군산 원도심권과 죽성포구 촌락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표시된 그림지도를 비롯해 국내 최초 신작로(전군도로), 일제강점기 군산시가지와 내항, 1930년대 자전거포 풍경, 1950년대 군산 화물역, 월명동, 영화동, 중앙로 거리, 60~70년대 꾀보선창 부근 조선소, 초록 들녘을 가로지르는 상여행렬(1970년대), 군산상고 우승 카퍼레이드(1970년대), 매케한 최루탄 냄새 가득했던 1987년 6월 군산시청 사거리 풍경 등이 시선을 모은다. 아래는 임성용 대표의 전시회 소감이다.

“지금 군산은 근대역사를 간직한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구도심은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건물이 경쟁하듯 들어서고, 국적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설물이 거리거리 즐비하다. 마치 서울의 가로수 길을 보는 듯하다. 근현대사의 증거물인 건축물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중 군산의 근현대사가 오롯이 담긴 조종안 기자의 사진들은 신선한 충격과 열정을 허용해 줬다,

이번 사진전을 준비하며 역사와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재확인하였다. 빛바랜 사진에 담긴 의미를 피부로 느끼면서 그동안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다뤘던 기록물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라도 더 남겨야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첨단시대를 살아갈 후손들이 우리가 기록하고 남겨준 것들을 감사히 받아들여주기를 희망하면서 전시회를 준비했다. 시민들의 많은 향유를 바란다.”

임성용 대표는 “이번 특별기획전(테마 사진전)은 군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전시회다. 전시장에 전시된 사진은 모두 400여 점으로 테마별로 배경 설명을 곁들여 작품에 제목만을 달아 전시했던 예전 사진전과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중 눈에 띄는 사진 몇 점을 소개한다.

## 처음 공개되는 죽성포구(꾀보선창) 모습

군산의 원도심권(옥구군 북면)과 죽성포구 갯마을이 그려진 지도이다. 우측에 한자로 '명치(明治) 31년 7월 15일 촌(寸), 재(在) 목포영사래신(木浦領事來信) 제26호 부속(附屬)'이라 적었다. 명치 31년은 군산 개항 1년 전(1898)으로 개항과 함께 지정될 각국조계지 경계가 그어져 있다. 강안으로 뻗은 수덕산에 일본영사관 자리도 표시해 놓은 것으로 미루어 옥구 감리가 목포 영사관에게 보내는 북명서 부속 자료로 보인다.

왼쪽 하단 산(石山) 표시와 초가(草家) 다섯 채가 그려진 촌락(동그라미 표시)이 죽성포구이다. 군산진(수덕산), 경포(설애장터) 등으로 연결되는 길과 구 조선은행 부근의 지류(지금의 대학로)에 다리가 표기되어 있어 흥미를 돋운다. 조선 시대 편찬된 <옥구군지>에서도 죽성포구와 대밭이 발견된다. 그 대밭이 성(城)처럼 마을을 감싼 모습이어서 '죽성리(竹城里)' 혹은 '대재'라 했다고 전한다.

촌락 왼쪽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류(일명 세느강)는 현 둔율동 성당 인근 방죽에서 발원한 개천과 팔마산 기슭에서 발원한 개천이 구시장 부근에서 만나 죽성포구로 유입되었다. 그 외에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잔 물줄기가 3~4개 더 있었다. 그 물줄기들도 죽성포구로 모여들었다. 이처럼 꾀보선창으로 흘렀던 지류들이 모두 복개되어 골목길, 주택단지, 상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해망굴(2009년 모습)



경포천 입구(2009년 모습)



들녘을 가로지르는 상여 행렬



국내 최초 신작로(전군도로)

##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 해망굴

해망굴(국가등록문화재 제184호)은 1926년 10월 명치정(중앙로 1가)과 수산업의 중심지 해망동을 연결하고자 반원형 터널(높이 4.5m 길이 131m)로 개통되었다. 당시 인근에는 군산신사와 신사광장(현 서초등학교 운동장), 공회당, 도립군산의료원, 은행사택, 안국사(현 흥천사) 등이 자리하고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해망굴 앞은 일본 천황 이름을 딴 명치통(중앙로 1가)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태평양전쟁 때는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린 조선 젊은이들을 환송하던 신사광장이 이웃에 있었고, 한국전쟁 중에는 군산주둔 북한군 지휘본부가 터널 안에 자리하여 연합군 공군기의 폭격을 받았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 서울로 가는 길이었던 경포천(京浦川)

조선 숙종 27년에 만들어진 <전라우도 군산진 지도>를 보면 옥구군 경포리에 큰 하천이 있고 여기에 긴 다리 하나가 표시되어 있다. 지금의 '아흔아홉 다리' 부근이다. 이곳에 큰 장이 섰다. 400년 역사를 지닌 '설애 장터'이다. 경포는 호남지방 물화를 이곳에서 서울로 올려 보낸 데서 유래한다. 서울, 충청, 전라 지역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포구였던 것.

## 국내 최초 신작로 '전군도로'

일제는 1908년 군산을 출발점으로 하는 신작로(전주-군산)를 국내 최초로 개설하였다. 일제의 목적은 호남평야에서 거둬들이는 쌀의 용이한 반출과 조선 3대 시장인 강경시장으로 모이는 민족자본 괴멸,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군수품과 상품의 원활한 보급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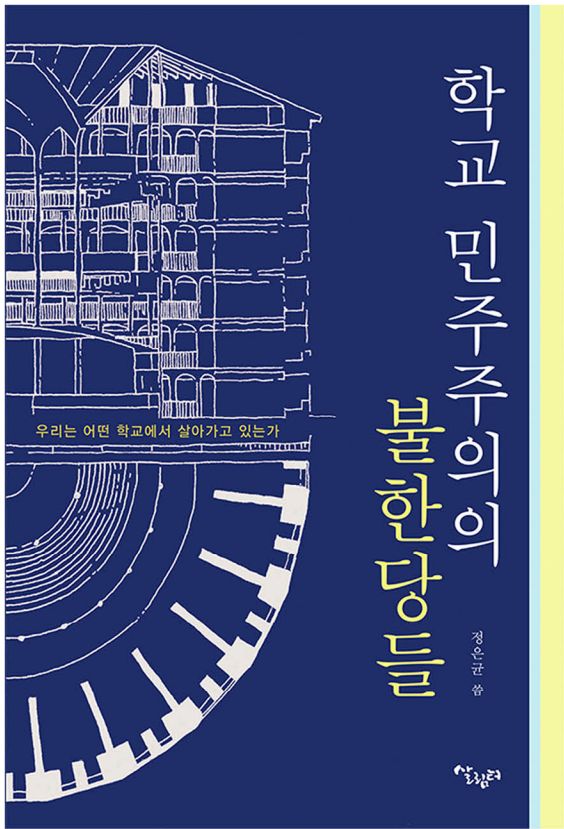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던 신작로 공사장 인부는 조선 청년과 농민이었다. 강제노역으로 일본 경찰에 잡혀온 동학군과 의병도 다수 섞여 있었다. 소설 <아리랑>에서도 의병활동을 하던 손판석·지삼출 등이 일경에 붙잡혀 노역하다가 탈출하여 부두 노동자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때 유행했던 노래가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가장 되네...'이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벼섬을 산더미처럼 쌓은 달구지 행렬이 20~30리씩 이어져 장관을 이뤘다는 전군도로. 군산선 개통(1912) 이후에는 화물차가 가세하였고, 그렇게 집산된 벼들은 내항 부근의 창고와 정미소를 거쳐 일본으로 바리바리 실려 나갔다.

사진제공: 동국사, 차인영

사진 전시는 6월 23일까지, 관람 시간은 10시~18시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학교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 학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말하다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학교 민주주의의 불한당들』은 학교 민주주의를 해치는 언어, 담론, 정책, 습속에 대한 보고서이다. 글쓴이는 현직 교사의 섬세한 시선으로 ‘우리는 어떤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은 뒤 그 답을 학교 민주주의에서 찾는다.

‘학교 민주주의의 불한당들에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해 주는 이 책은 더 나은 학교공동체를 고민하고 소망하는 이들의 새로운 시間に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어와 담론의 문제들을 돌아보다

학교 민주주의의 불한당들, 글쓴이는 보르헤스의 소설 속에서 우리의 학교에 자리 잡은 불한당들을 떠올렸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들먹이며 ‘불한당’ 노릇을 하는 수많은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조그만 실마리라도 얻고 싶었던 것이다. 수많은 언어를 타락시키는 이 나라 권력자들에게 어떤 언어를 들려주어야 저들이 자신들의 불한당 짓을 돌아볼까... “내 시선을 끈 것은 제목에 있는 ‘불한당’이라는 말이었다. ‘학교 혁신’과 ‘교육 민주주의’를 부제에 넣은 전작의 원고만으로 성에 차지 않는 무엇이 있었다. 학교 혁신을 방해하는 질긴 관행과 습속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어와 담론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 모든 것을 ‘불한당’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나만의 언어로 드러내고 싶었다.”

### 불한당들의 창과 방패를 딛고 나아가다

“정치적 중립성이니 경쟁주의니 하는 주입된 언어와 담론을 ‘방패’ 삼고, 국가주의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교육 정책과 제도라는 ‘창’을 휘두르며 개개인의 삶을 노예로 길들이는 불한당들”이 널린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직시와 예리한 반론을 읽노라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보다 선명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독자로서 글쓴이를 따라 관료주의, 감시 문화, 침묵과 순응주의, 지식 절대주의, 인성교육 만능론 등 불한당들의 습속을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면 ‘벌떡교사’로 살아가려는 그에게 어느새 찬사를 보내게 된다. 한편,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글쓰기와 독서 교육에 공을 들이는 교사이자 거침없는 필력을 쌓아가는 작가가 선사하는 글을 읽는 재미일지도 모른다. 방대한 독서와 옥석을 가리는 해안은 독자들을 진정한 책 읽기의 즐거움으로 초대해준다.

### 왜 학교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1부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학교 민주주의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민주시민교육의 제일 주체여야 할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기계와 학습하는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의식이 존재를 배반하는 그들의 삶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같은 비민주적인 적폐로 점철된 학교교육 시스템,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학교제도와 교육의 역사에 그 음험한 본질이 숨어 있다. 국가에 복무하고, 우리 고유의 자생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져 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교육사도 하나의 배경이다.

### 학교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것들

2부에서는 학교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언어와 담론, 정책과 제도, 습속 등을 다룬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성숙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휘방 놓는 대표적인 수단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어와 담론들이다. 이들 언어와 담론이 정책에 투영되고 제도로 구체화한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교육 주체들의 습속에 지속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언어와 담론, 정책과 제도를 각각 학교 민주주의의 불한당들의 ‘무기’에 빚댄 이유다.

### 학교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3부에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사회 변혁 도구로서 교육의 한 본질,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학교 시스템 정립을 위한 국내외의 사례를 대안 제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학교 문화의 저변에 깔린 평가 만능주의나 과도한 경쟁 신화가 교육의 본질을 해치고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기제들을 보여주려 한 글쓴이는 결론적으로 학교 민주주의의 불한당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새로운 학교 민주주의 시대를 촉구하다

다시금, 글쓴이는 학교공동체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경쟁보다 협력의 힘을 믿는 이들에게, 새로운 모색의 길을 같이 걸어 보자고 촉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고 줄 세우는 곳으로서의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배움터로의 대전환이다. 학교가 새롭게 변신할 수 있게 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관건이 바로 ‘학교 민주주의’이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 학교 안팎의 구성원들이 자율과 자치와 협치의 민주주의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는 가능해진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면서 쓴 정은균 선생님의 책은 새로운 학교 민주주의 시대로의 대장정을 촉진하는 마중물이다.”(추천의 글에서)

### 정은균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18년째 일하고 있다.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고, 수업 시간에 글쓰기와 독서교육에 애쓰고 있다. 좋은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잡다한 글을 쓰는 게 커다란 즐거움 중 하나다. 개인 블로그(blog.ohmynews.com/saesil),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와 글쓰기 사이트(brunch.co.kr/@jek1015)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시 공부의 모든 것》, 《국어와 문학 텍스트의 문제 연구》, 《국문 서사체의 문제론》, 《한글이야기》가 있다. 현재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산영광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 THE 28th PARADISO CONCERT

파라디소 28회 콘서트

## 대한포도주 장미연합회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DATE\_ 2017.06.09. Mon. 8:30 pm

PLACE\_ PARADISO PERDUTO (군산시 나운동 248-14)

COVER CHARGE\_ 35,000 (와인 or 에딩거 한잔포함)

공연예약문의\_ 063-471-8525

## 치명적인 매력으로 돌아온 걸크러시의 대표 여성 뮤지션 귀환!!

순수한 음악의 열정으로 모인  
비브라폰 연주자 **마더바이브**,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선우정아**,  
하모니 걸그룹 **바버렛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강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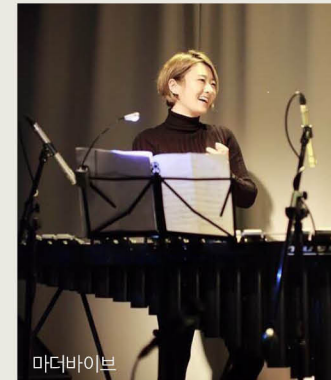
이들이 모여 만들어낸 시너지의 결정체  
‘대한포도주장미연합회’

음악을 업으로 삼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여자 6명의 다양하게 시작된 연은 시간이 흐르며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깊어져, 언제부턴가 그녀들 사이는 더 이상 사회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될 정도로 교감하게 되었다. 서로의 음악은 물론이고 삶에 대해서도 소통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그녀들은, 이 시너지를 ‘No More Social Club (노모어소셜클럽)’이라 부르기로 했다.

‘대한포도주장미연합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은 공연제목이었으나, 한 번 들으면 잊기 힘든 단어들의 조합 덕분에 본래 이름을 대신해 애칭처럼 불리우고 있다.

지난 해 상반기에 매월 진행된 4번의 공연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되고 추가 예매 문의가 쇄도하는 등, 최근 공연씬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동시대 비슷한 나이포래의 뮤지션들이 모인다 하면 낯선 배틀을 예상하기 쉽지만 ‘No more Social Club’ a.k.a ‘대한포도주장미연합회’라 불리는 이 여자들은 그 이상의 에너지로서, 성장하는 젊은 뮤지션들의 극히 좋은 예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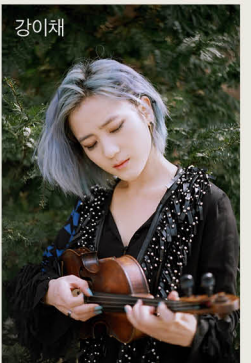
마더바이브



선우정아



바버렛츠



강이채

2016년에 직접 기획, 연출했던 '삼청로 146'에서의 소규모 정기공연들부터 7월 홍대 무브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상반기 결산총회'까지, 매번 확실한 컨셉과 다양한 공연 레퍼토리로 무대를 분위기 있게 채워온 그녀들이 이번에도 <The New 90's of 대한포도주장미연합회>라는 올드 스쿨 힙합, 댄스 등이 연상되는 제목과 포스터로 파격적인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상반기결산총회’ 공연 이후 강이채의 솔로 데뷔 앨범 [Radical Paradise], 바버렛츠의 정규 2집 [THE BARBERETTES], 선우정아의 미니 앨범 [4x4] 등 각자 신보를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에 이번 공연의 다양한 레퍼토리와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일 계획으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소속 회사와 활동 장르가 다른 그녀들의 음악을 향한 순수함과 지속적으로 함께하고픈 뜨거운 마음을 현실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연 <The New 90's of 대한포도주장미연합회>. 지난 공연들을 통해 증명해온 그녀들만의 케미스트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0년 손맛

중화  
요리

## 홍콩반점

고동영 사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홍콩반점의 고동영 사장(61)은 인생의 절반을 중화 요리와 더불어 지냈다. 대부분 그랬듯 어린 시절 어렵기 그지없었던 가정 형편은 그를 일찍 철들게 했다. 그의 목표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가 택한 것은 중화요리. 그는 관내 유명 중화요리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며 차근차근 배우고 익혀 나 운동에 자신의 업소를 개업했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길로만 달려온 그 세월이 어느덧 30년이다.



홍콩반점의 메뉴는 대략 35종으로서 가장 대중적으로 선호되는 음식은 역시 짜장면이다.

사실 짜장면 맛만 해도 중화요리점마다 조금씩 질감과 맛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어느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니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된다. 최근엔 먹거리나 대중의 입맛도 변하는 추세이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퓨전화 된 음식을 선호하는 세태가 됨으로써 중화요리점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고 사장은 기본적으로 전통의 방식을 고수한다.

홍콩반점의 인기 메뉴로서 고 사장이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은 단연 사천탕수육과 매운 고추잡채다. 매운 고추잡채는 원래 당면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이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다보니 약 15년 전부터 잡채를 넣고 있는데 매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먹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로 맛이 일품이다. 요리에 들어가는 채소만큼은 선도를 따져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데 해삼 등은 지방에서의 품귀 현상을 빚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홍콩반점은 9개의 식탁을 갖춘 그리 크지 않은 업소지만 최근엔 동종 업소가 늘어선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찾아오는 손님이나 배달 매출이 감소한 상태다.





고 사장에 따르면 업소 위치가 한화생명 빌딩 옆이어서 아무래도 직장인 손님들이 많은 편이고 배달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꾸준히 찾아주는 고객들 덕에 그럭저럭 견디고 있다며 경기가 좋았던 예전, 배달원만도 5~6명을 고용해야 될 만큼 장사가 잘됐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크다. 그래도 홀 손님보다는 아직 배달 주문이 많은 편이고 워낙 동종 업체가 많이 생기다보니 약 10여 년 전부터는 직원 없이 부부 단둘이 일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이고 신선한 요리가 우선이 아니겠냐며 무엇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강조하는데 최근엔 요식업조합에서도 수시로 방문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며 항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식을 심어준다.



고 사장은 지금은 비록 예전의 호황이 사라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30년 세월 좋은 아내 만나 화목한 가정 이루고 열심히 일하며 1남1녀 자녀들 반듯하게 가르치고 키워냈으니 그 보람으로 위안을 삼는다면서, 다만 나이가 들며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어 시간 날 때면 부부가 같이 등산으로 체력 보강을 한다며 '두레여성산악회' 1기 회원이라는 말도 들려준다. 한 주 한 번씩 산악회 따라 드넓은 자연에 나가 회원들과 함께 심신을 연마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즐거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활동할 작정이란다. 이 집의 별미인 사천탕수육과 매운고추잡채의 맛이 궁금하다면 근처 신봉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놓고 한 번 시식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홍콩반점’**  
나운동 한화생명 옆  
오전11시~오후8시(매주 화요일 휴무)  
T. 063)463-8020





# “진공관은 흑백TV, 파워를 전우만큼 반가웠다”

군산 근대소리박물관  
이종간 관장을 만나다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송호마을)에 자리한 근대소리박물관(관장 이종간)을 찾았다. 허름한 목조건물이 객을 반긴다. 이 건물은 6~7년 전까지 방아를 찧고 정미도 하던 송호리 방앗간(정미소)이다. 손때 묻은 쟁기를 비롯해 탈곡기, 풍구, 무자위(수차), 발동기, 홀태, 작두, 새끼틀, 갈퀴, 쇠스랑 등 다양한 농기구가 황토 냄새 그윽한 농촌풍경을 연출한다. 이종간(69) 관장은 일제강점기 정미소 기계도 보관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송호리 방앗간 처음 주인은 편산치태랑(片山久太郎)이라는 일본인 농장주였죠. 마을 사람들도 그의 성씨를 따라 ‘편산이 방앗간’이라고 했어요. 원래 정미소는 여기에서 200m쯤 떨어진 저쪽에 있었는데, 저희 집안 할아버지가 1951년 이곳으로 옮겨 재건축했고, 집안 어른들이 운영하다가 2014년 제가 인수했죠. 정미소 상량목을 비롯해 벨트를 걸 때 사용하던 나무사다리, 나락이나 쌀을 탱크에 올려주는 나무베어링이 부착된 승강기 등이 남아 있습니다.



50~60년대 사용하던 유선방송 스피커



900여 점의 음향기기가 전시된 나락 창고

조선총독부 문서(1936)에 따르면 편산(片山)은 경술국치 이듬해(1911) 조선으로 건너와 이곳(개정면 운회리)에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개정면 협의원, 육구군농회 상의원, 소작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지방농촌 진흥을 위해 공헌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농민 착취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당시 ‘편산 농장’은 소작인 150명에 쌀 생산량은 한해 1500석이었다고 합니다. 정미소 나락 창고(100평)는 제가 40년 전부터 수집해온 음향기기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지요.”

신형 비디오보다 구닥다리 소리통에 더 애착 느껴

이 관장을 따라 나락 창고로 이동했

다. 발을 들여놓은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온다. 창고를 가득 메운 정제불명의 물건들. 이 관장은 모아도 모아도 모으고 싶고, 가져도 가져도 또 갖고 싶다는 너털웃음을 짓는다. 100년도 더 됐을 나무상자(축음기)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다니 놀랍다. 그래서 그런지 볼수록, 들을수록 신기할 따름이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도 구닥다리 축음기가 신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인류에게 소리의 혁명을 가져다준 에디슨 실린더형 축음기를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 시험방송을 했던 라디오와 같은 모델인 1925년형 진공관 라디오, 원통형 실린더에 태엽이 부착된 전축, 원반형 벨리너 축음기, 1960년대 LP 플레이어, 카세트 오디오 및 레코더, 녹음기 등 세월의 나이가 느껴

지는 각종 음향기기가 가득하다. ‘찌지~직’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유성기 판이 100년 전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본업이 전기 기사인 이 관장이 지금까지 수집한 음향기기는 900여 점. 나락 창고로는 부족해 사무실까지 전시실로 사용한다. 일제강점기 빅터 레코드에서 녹음한 춘향전 SP 음반(상, 하권 20장)도 보인다.

다. 에디슨 축음기는 희귀품으로 지금도 소리 재생이 가능하다는. 이 관장은 “집에 최신형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있지만, 낡고 잡음이 많은 구닥다리 소리통에 더욱 애착이 느껴진다”며 활짝 웃는다.







‘니퍼 독’에 대해 설명하는 이종간 관장.

## ‘니퍼 독’(nipper dog) 이야기

축음기(유성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강아지 한 마리가 혼(horn) 앞에 머리를 기울이고 앉아 있는 그림이다. 특히 60대 이상 장년층이 어렸을 때 봤음직 한 그래서 더욱 정겹게 느껴질 강아지 그림은 세계 음반 산업의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형성했다. 20세기 음반 산업 브랜드 10위 안에 들기도 했던 상표의 연원은 잔잔한 감동과 애잔한 스토리가 담긴 ‘니퍼 독’(nipper dog)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영국의 어느 노인이 강아지(니퍼)를 키우면서 축음기로 음악(〈무도회의 권유〉)을 자주 들었다. 그러다 노인은 죽고 니퍼 홀로 지냈다. 그 후 축음기에서 주인이 즐겨듣던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이며 혼을 들여다보는 니퍼 모습을 ‘프랜시스 바로우’라는 화가가 유화로 그려 상표로 만들었던 것. 가공의 이야기로 영국의 H·M·V 사가 1899년 에디슨 축음기 판매에 앞서 흥

보용으로 만든 것인데 성공을 거두자 미국측 회사가 상표를 빌려 세계 축음기 시장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고 전한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니퍼는 1884년에 태어나 1895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 주인 목소리인 줄 알고 소리 나는 혼 앞에서 고개를 가우뚱하고 앉아있는 니퍼 모습은 볼수록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화가 바로우가 처음 그렸을 때는 홀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디슨 벨 컴퍼니(축음기 회사)도 개가 무슨 음악 감상을 하겠느냐며 로고 사용 제의를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나 영국의 EMI가 상표로 내놓고 급속도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명작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빅터(Victor)’사와 기술 협력을 하게 되죠.”

이 관장은 〈일본으로 간 아리랑〉 SP 음반 두 장도 소개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아리랑으로 언급

되는 〈일본으로 간 아리랑〉 음반(78회전)도 두 장 소장하고 있지요. 첫 번째 음반은 1930년대 후반 일본에서 제작(Teichiku)된 건데요. 당시 일본 유명 가수인 스가와라 츠즈코(菅原都々子)가 불렀습니다. 유행가(流行歌)로 표기해놓았기에 직접 들어보니 일본전통 가요(엔카)처럼 느껴졌어요. 광부나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이 아리랑을 부르며 고향을 그리워했을 거로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 중학교 때부터 전자 기계 분야에 관심 가져

부모 따라 장터 구경을 나온 아이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쌀 뒷박처럼 생긴 나무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TV는 커녕 라디오도 흔치 않았던 50~60년대 시골집 대청마루 기둥에 매달려있던 유선방송 스피커다. 각종 스포츠 중계, 만담, 유명 가수들의 노래 향연 등으로 사춘기 청소년들을 상상의 세계로 인도했던 고마운 스피커. 언제 누구네 집에 있던 물건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보릿고개 시절, 저의 집에 설치돼있던 유선방송 스피커입니다. 청취료는 1년에 두 번. 6월에 보리 한 말, 11월에 벼 한 말씩 곡식으로 냈죠. 채널은 중앙방송국(KBS) 하나만 청취할 수 있었고요. 볼륨도 조절할 수 없었지만, 뉴스, 가요, 연속극 등을 듣는 우리 집 최고의 문화 시설이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김삿갓 북한 방랑기> <노래의 꽃 다발> 등의 프로가 기억에 남고요, 한명



월남에서 2명 전우와 함께

전우와 함께 월남에서 이종간 이등병

숙의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가 나올 때마다 콧노래로 따라 하던 기억이 새롭네요.”

개정면 윤희리가 씬터인 이 관장은 “도시에서도 상류층이나 진공관 라디오를 보유할 수 있었던 1960년대 초, 농촌에서는 군(軍) 통신용 삐삐선을 집집이 연결해 스피커를 설치했는데, 네모상자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마음에 뜯어봤더니 U자형 말굽자석 하나가 붙어 있었다”며 “내부를 확인한 순간 허망하면서도 신기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전자·기계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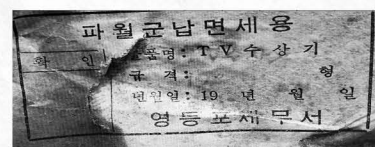
농고에 입학해서는 라디오 통신강의록(총 6권)을 받아 독학하면서 진공관 라디오를 만들었다. 라디오 소리에 놀라고 기뻐한 사람은 이웃 어른들이었다. 그는 전축 조립에 도전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는 법. 라디오를 수리해주고 받은 사례금과 용돈을 모아 전축 조립에 성공한다. 음질은 뛰어나지 않았



1971. 7. 8.  
휴년군 철에서 고향생각 하면서

지만,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상무대에서 문관으로 근무하는 외삼촌 소개로 전남 광주의 전파사에 들어가 기술을 익혔다. 1970년 해병대에 입대해서도 통신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친다.

## 가장 애착이 가는 소장품은 1967년산 흑백 TV



동남샤프 진공관 흑백TV

이 관장이 가장 아끼는 애장품은 취미 예술품 경매 사이트(코베이)에서 구매한 ‘동남 샤프 진공관 19인치 텔레비전’(1967년 동남전기공업에서 국내 두 번째 생산한 군납 면세품)이란다. 어느 날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생

사(生死)를 함께 했던 전우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 선뜻 사들였다 한다.

“송충이 한 마리(이등병) 달고 월남전에 참전했죠. 전쟁수당은 월 80달러. 그중 50달러는 당시 정부가 고속도로 놓는다고 빼앗아가고 30달러가 제 몫이었습니다. 그나마 10달러는 의무적으로 은행에 저축했고, 10달러는 부모님 용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0달러가 진짜 내 몫이었죠. 월남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TV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파월됐다가 맨손으로 귀국했죠.”

가슴에 아쉬움을 간직하고 지내던 어느 날.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진공관 TV인 것을 알리느라 뒤 커버를 열고 찍은 사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거기에 ‘파월군납 면세용 TV 수상기’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겁니다. 인증을 확인하면서 ‘밥을 굶어도 이것은 꼭 사야겠구나!’ 하고 이틀날 냅다 쫓아갔죠. 쟁 대신 닭이라고 할까, 아무튼 ‘파월군납..’ 문구를 보는 순간 죽었던 전우가 살아온 것만큼이나 반갑고 기뻐했으니까요.”

역사의 향기가 깃든 음향기기를 손에 넣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종간 관장. 취미로 한두 점씩 구매하다 나중엔 옛것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자는 소명 의식으로 좋아하는 막걸리를 참아가면서 모았다고 한다. 그는 미래 소망을 묻자 “지금은 제대로 된 전시관이 아니다. 널따란 전시장을 만들어 이 시대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어떻게 영위했는지 후세에게 보여주는 게 꿈”이라고 했다. 1백여 년의 소리 역사를 지켜온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박물관을 나눴다.





#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들의 모임

(사)‘가건모’군산지부  
장은희 지부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삶의 양태와 가치관이 변함으로써 전통적 가족 개념 또한 바뀌고 있다. 특히 극심한 저 출산으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웃어른을 따르고 예절을 중시했던 옛 인륜의 덕목들은 사라져가고 맞벌이 부부가 늘고 남녀 구분 없이 안팎의 일을 분담하며 관계성보다는 매사 자기 위주의 개성이 고집됨으로써 그에 따른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형제자매 간 등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 ‘가건모’의 창설 및 활동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들의 모임(가건모)’이 창설된 것은 지난 2004년도. 물질만능 세대의 심화는 급격한 가정의 위기를 불러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어왔고 이에 따라 가정의 행복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미래가 밝을 수 없다는 취지가 공론화 되면서 ‘국민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후 각 시도 지부 및 산하 22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는데 군산대 교수들과 일부 시민들이 주도하여 전국 1호로 군산지부를 결성하게 된다. ‘가건모’는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정경영을 컨설팅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건강한 가정이 밝은

사회의 토대라는 신념하에 창립되어 현재 1,000여명의 가정, 가족 관련 전문가와 일반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15개 지부를 중심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2년도부터 ‘가건모’에 참여하고 있는 군산지부의 장은희 지부장은 교육심리학을 전공, 한 때 학원을 운영한 경력과 함께 군산대 최고지도자 과정 동문회장을 역임한 재원으로서 군산대에서 지부 산하 센터사업을 위탁받아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운동가다. ‘가건모’는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지부장의 사재 출연이 따를 수밖에 없어 사명의식이 앞서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 지부장의 남다른 열정이 엿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가건모’의 회원 수는 100 여명이 넘으며 그 중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소수 인원의 자원 봉사로 운영되는데 10년 넘게 꾸준히 참여하는 회원도 상당수다. 그러한 회원들의 열정에 힘입어 장 지부장 역시 작년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게 됐으며 군산여성단체협의회 송미숙 전임 회장의 협조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가건모’의 주 활동은 개별 가정에 대한 부모상담, 가족상담을 비롯해서 예비부부상담 등을 통해 가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부부상담의 경우 그간 집단상담 형식을 취한 적도 있었지만 부부 문제가 공개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철저히 개별 상



답으로 전환했으며 반드시 부부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 가정불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구성원 간에 화합이 결여된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키기 십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 정도, 공동체 경험 등을 통해 각기 다른 자아가 형성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성향도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다. 갈등의 요인 중에는 종교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타 종교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지성과 열린 마음은 인간관계를 더욱 폭넓고 따뜻하게 하는 요소라 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 폭 넓게 뿌리 내리고 있는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부모의 구박, 남편의 폭력 등이 대표적 유형으로서 언어 소통의 문제와 함께 다름을 인정치 않는 데서 오는 소통의 결여가 요인이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방에 따라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다른 국가 간에야 오죽 할 것인가. 문화는 우열을 따질 수 없고 서로가 다른 것일 뿐 어느 일방이 틀린 것이 아니기에 서로가 존중해주는 자세는 가족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교양이라 할 수 있다.

‘가건모’는 가정 내 갈등에서 유발되는 피해자 상담과 병행하여 심리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정도가 심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경우라고 판단되면 당사자 간에 원망과 상처를 줄이면서 원만히 잘 헤어질 수 있도록 돕기도 하며, 이는 이혼 후에도 서로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련의 상담은 장 지부장을 위시한 각 분야별 전문화된 이사들이 유형별로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장 지부장에 따르면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는다는 점에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가건모’에서는 좋은 부모의 강령을 제정하고 모범적 가정을 추천, 여성가족부장관 상 수상의 기회도 주고 있다.

**좋은 부모 Good P(Parents) 7대 강령**

- Pride 좋은 부모는 부모 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Acceptance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 Responsibility 좋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Empowerment 좋은 부모는 건강한 부모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Neighborhood 좋은 부모는 이웃과 함께 한다.
- Time 좋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 Security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갖는다.



가건모 건물 내의 승마체험실

**좋은 부모상(대상1명/여성가족부장관상)**

- 신나는 부모상(Pride) : 부모 됨이 자랑스럽고 즐거운 부모.
- 참교육 부모상(Acceptance) :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판단하지 않는 부모.
- 책임 있는 부모상(Responsibility) :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녀를 독립시킨 부모.
- 노력하는 부모상(Empowerment) : 부모 교육이나 가족 봉사 참여 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부모.
- 이웃 나눔 부모상(Neighborhood) : 가족 품앗이 활동 등을 통해 이웃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실천하는 부모.
- 반반 아빠상(Time) : 일과 가정을 함께 하며 평등하게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아버지.
- 안전지킴이 부모상(Security) : 자녀와 가족을 둘러싼 지역 환경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실천하는 부모.

장 지부장의 이렇듯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 이면에는 부군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다. 그녀의 말을 빌면 사무기기 사업과 수송동 자가 빌딩에 승마클럽,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남편은 빌딩 내에 자신을 위해 ‘가건모’ 사무실도 흔쾌히 내어 주었다. 또한 아내의 사회활동에 자금을 북돋아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큰 것 같다면서 밝은 웃음을 보여준다. 모르긴 해도 장 지부장의 꿈은 모든 가정에서 갈등과 불화가 치유되고 가족 간에 더욱 건강과 화목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일 게다.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굳게 믿고 있어서다.

사단법인 ‘가건모’  
군산시 상지곡안3길31 김앤장빌딩  
상담전화 T.063)468-5723



# 어민들 건의 외면하면 수산업 위기 닥쳐

임성식 전 군산시 수협조합장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획 근절해야”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임성식(80) 전 군산시 수협조합장. 그는 평생을 험한 파도와 싸워온 바다의 사나이이다. 열네 살 때 1.5톤짜리 주꾸미 배 화장(火長:배에서 밤하는 사람)으로 어부 생활을 시작 기관장, 선장을 거쳐 스물아홉에 어엿한 선주가 된다. 그리고 1969년 가을 20톤짜리 중선(안강망)을 끌고 먼바다로 진출, 국내 최초로 '동지나해(東中國海) 어장을 개척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정부의 어업 정책이 바뀌면서 상도 많이 받

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2002) 훈장도 받았다.

임씨는 군산에서 북서쪽으로 22km 떨어진 작은 섬 연도(煙島)가 고향이다. 보리죽 먹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임씨는 남다른 건강과 끈기를 밑천으로 자수성가한다. 임씨는 자비를 들여 연도에 전기를 끌어들이고 학교 담장을 쌓아주는 등 애향심도 남다르다. 어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 고향에서 어촌계장을 맡기도 하였다.

한때는 안강망 13척을 보유, '어부 갑부', '안강망의 달인' 소리를 들으며 서해 어장을 누비고 다녔다. 4대(1994~2010)에 걸쳐 군산시 수협조합장도 지냈다. 어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정리하고 어선(140톤) 한 척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35년 전 마련한 군산 꾀보선창 부근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임씨. 지난 27일 오후 '119 길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예갸미술관에서 그를 만났다.

“옛날 뱀어잡이 배 사진도 있고, 판자로

지은 허름한 동부어판장 사진도 있고, 선술집이 짝 들어섰던 꾀보선창 부둣가 사진도 있고, 군산의 역사를 다 모아놔고만. 이 사진을 다 어디에서 구했데. 특히 만수호 진수식 사진을 전시장에서 보니까 감회가 더 새롭네. 진수식을 해망동 대신조선소에서 했거든. 가만있자 뒷모습만 보이는 이 사람은 내 마누라 같은데... (웃음)

여기 이 가운데 배가 동지나해 어장을 국내 최초로 개척했던 그 만수호(20톤)여. 대한민국 수산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준 고마운 배지. 이후 근해에서만 이뤄지던 어장이 태평양으로 확장됐거든. 가만있자 그때가 1969년 가을이었으니까 몇 년 됐냐. 벌써 50년이 되어가네. 참 그때는 죽을 줄

모르고 덤뻐졌지. 군산 근해에서도 어선 전복 사고가 자주 일어났었거든...”

임씨는 “나도 열다섯 살 되던 해 겨울 개야도(開也島) 근해에서 주꾸미 잡이를 하다가 전마선이 뒤집히는 바람에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본선(本船) 어부들의 재빠른 구조로 살아나는 등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다. 사실 동지나해 어장 진출도 조업이 아니라 생사(生死)가 걸린 투쟁이었다.”라면서 먼저 세상을 뜬 동료 어부들이 생각나는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임씨의 동지나해 어장 개척은 당시 정부가 근해 어선들의 조업 범위를 동지나해 및 중부 태평양 어장으로 확대할 방침을 내비치는 등 한국 수산업계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20톤 안팎 목선으로 연근해에서 조업해온 선주들은 원거리 조업을 위해 70톤~100톤 규모의 대형 어선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도 어장조사 및 시험 조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기술 지도와 수산물 생산 및 수출 목표를 확대 발표하기에 이른다.

광복 후 군산의 어선과 어획고 변화

군산 지역 어업은 광복(1945) 후 연근







해를 중심으로 주목망, 소형 안강망(중선), 연승어업(주낙어업), 유자망어업 등 소규모 어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0년대 이후 남장망 어업과 새우어업(조망) 등 새로운 어업을 시작한다. 1969년 동지나해 어장 개척 이후에는 어선을 대형화, 현대화시키고 동북아의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는 등 활기 속에 황금기인 1970년대를 맞이한다.

군산시 수협 관내 연도별 어선 추이(군산시 해양수산물과 자료)를 보면 1962년 당시 어선은 총 711척 가운데 동력선이 158척으로 동력화 비율이 22%에 불과했다. 것처럼 부실했던 어로 상황은 1969년 이후 해난사고 예방과 어로작업 능력향상을 위해 동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75년에는 어선 1120척 중 동력선이 617척으로 55%를 넘어선다.

또한, 어선 대형화·현대화 사업을 전개하여 1981년에는 어선 1291척 가운데 동력선이 1177척으로 90% 이상 동력화 된다. 어선 척수도 1962년에 비해 1975년에는 3.9배가 증가하였고, 1989년에는 9.6배(1514척)로 증가한다. 1996년에는 동력선이 96%를 차지한다. 이후 2003년 말에는 총 어선 2079척 중 동력선이 2073척으로 100%에 이른다.

어획량과 위판액도 변화가 일어났다. 1962년은 어획량 5천224톤에 위판 실적은 8천 9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어선의 대형화, 현대화로 군산 어민들은 황금기를 맞는다. 1975년 위판액 56억 3000만원, 1977년에는 112억 7000만 원으로 100억 원을 돌파한다. 그리고 1987년에는 420억 원, 1999년에는 608억 원의 위판액을 올린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위판액은 500억 원을 약간 웃돌면서 담보 상태를 거듭한다.

## 시급한 것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획 근절

50~60년대에는 재보선창 앞에서도 농어, 민어 등 고급 어종이 잡혔다. 그러나 서해안 개발이 본격화되는 1980년대 이후 산업단지 조성 and 새만금사업 등으로 바닷물이 오염되고 간사지 매립 등으로 어장이 상실된다. 또한, 대부분 근해어장이 황폐해진다. 더욱이 1993년 이후 7년 6개월의 마라톤협약 끝에 발효된 2002년 6월 한·중 어업협정은 군산 지역 수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임성식 씨는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증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획을 근절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중 어업협정 이후 우리는 해마다 정부에서 금어기를 정해놓고 어민들의 어로작업을 강력히 단속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 금어나 휴어기에 중국 어선들은 하루 수백 척씩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넘어와 불법 어획을 일삼아요. 해경이 단속을 펼치지만 역부족이죠. 이대로 가면 우리 어족자원은 씨가 마릅니다. 어민들의 권익보호가 따로 없어요.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어민들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우리 수산업은 어족자원 고갈로, 유자망도, 연승도, 안강망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에게도 문제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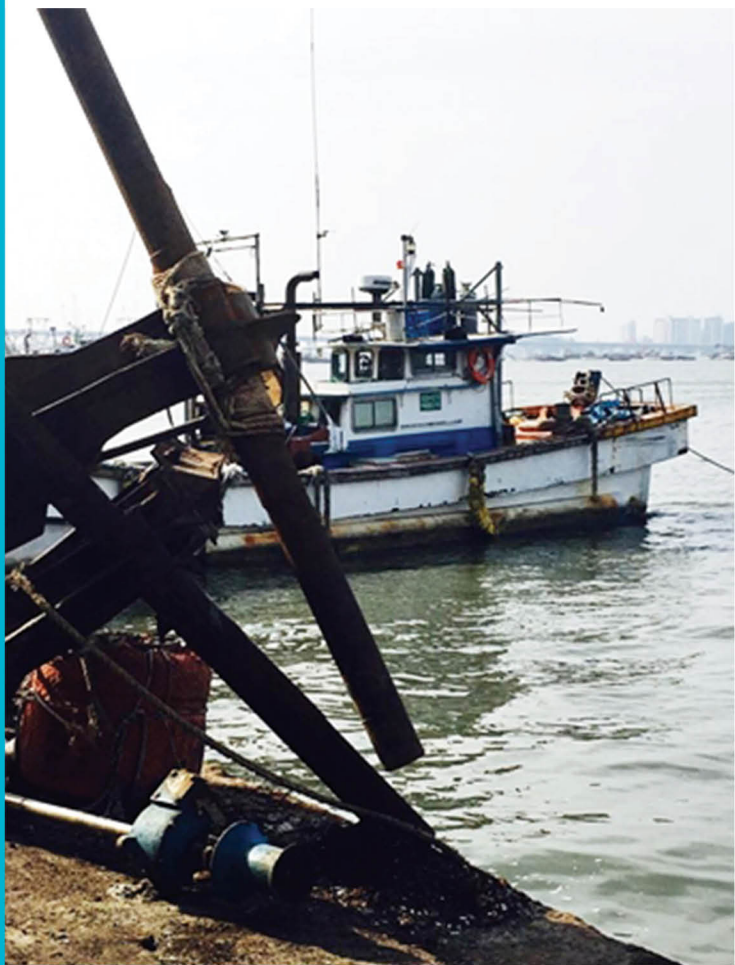
는 것은 아니지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단속이 더 시급하죠. 정부는 어민들이 건의하면 심각하게 검토하고 대처해줘야지 입버릇처럼 하는 잔소리로 알고 외면하거나 문제점을 방치하면 우리 수산업은 머지않아 큰 위기에 닥칠 것입니다.”

평생 바다를 밟아 수산업에 종사해온 임씨는 “근해에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어망과 어구들의 단속을 당국에 요구해도 돌아오는 것은 불법남획을 일삼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손이 부족하다는 답변뿐”이라며 “해경의 손이 부족하다면 신고제를 활성화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적보선창에 대한 미래 상상

글 | 박성신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군산에는 적보선창이 있다.

구 조선은행에서 동쪽으로 하굿둑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다다를 수 있다. 채만식의 탁류 동선도 겹쳐보고, 금강 건너 서천도 마주 보면서.

적보는 언청이를 지칭하는 말로, 내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던 물길을 지도에서 보면 비슷한 형상이라고 해서 유래한 지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안선이 들고나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지닌 서해에서 볼 수 있는 지형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립을 거듭해서 지금은 멀쩡한 땅의 모습이지만, 오래전에는 죽성포라 불리던 물길이었던 셈이다.

한때 수산물을 쏟아내는 배와 사람이 모이는 적보선창은 군산을 대표하는 흥한 지역이었다. 배에서 갓 내린 수산물을 팔기도 하고, 젓갈을 저장하던 탱크도 가득했고, 한편에선 소규모 조선업도 이루어지고, 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었다.

북적임은 도시에서의 중요도를 나타내기에 적보선창은 기차길, 뱃길, 자동차길 등이 얹혀 꽤나 복잡한 도시 구조의 점점이기도 했다. 그랬던 적보선창이...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의 적보선창은 원래의 기운을 잃고, 산업도로가 나면서 퇴색한 군산 내항 일원이다. 그 흥했던 기운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얼마 전 적보선창을 다시 걸었다. 내항은 이렇다 할 변화 없이 모든 게 썩썩 앓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선 듯 각질의 두께를 더하고 있건만, 계절이 다소 생기를 더하고 있는 정도였다. 기대가 크지 않은 탓인지 틈새마다 언뜻언뜻 보이는 초록 봄기운이 고맙기까지 했고, 좀 과장하면 버려진 콘크리트 건물 캐노피에서 피어난 꽃은 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할 만큼 반가웠다.

도시의 속살을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내항은 가릴 기운조차 없는지 도시의 민낯을, 흐트러진 자세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수심이 낮아지고, 물때 맞춰 살던 갯일이 줄어들면서 수산업은 제조업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내항 배후시설군은 내 버려지고, 남은 몇몇이 최소한의 살이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떠나고 버려진 공간은 저항 없이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운에 대한 기다림이 간절하다. 그렇다고 선불리 달려들 일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군산에서 진행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어설픈 실수를 충분히 경험했고 깨달았으니까. 지자체 주도의 사업 구도, 수치적 성과지표 양산, 표피적 공간 변화, 관광 중심의 개발에서 철저하게 벗어

나야 할 필요가 있다.

쇠퇴는 공간에 대한 상상력에 기인하여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그 상상력은 공간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삶과 기억에서 끌어낼 수 있다. 그 원점은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기록하는 과정이고, 사업의 궁극적인 수혜자이자 주체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이므로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시적 관점에서 볼 때, 내항 일원의 유휴공간은 수산업 기반 산업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 원도심 일원의 근대 주거기반 군집경관과는 대별된다. 규모가 큰 공간의 원형을 살려 공공성적의 문화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걷고 보니 군산에서 할 일은 많다. 제대로 된 내항의 도시재생은 지금부터 고민하는 긴 계획의 시간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때마침 명산동 예술품관에서 군산 도시 풍경에 대한 전시(길 사진전)가 있다. 한 번 가서 찬찬히 보며, 물길 따라 문화의 배를 띄운 미래 적보선창을 그려보길 바란다.



# 군산 부동산 우리가 책임진다!!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김현진 이사, 박옥희 이사, 성영미 이사, 박미숙 이사, 장계순 재무, 박영수 감사, 서은식 이사장, 고인숙 부이사장, 고인숙 총무

군산지역에 최초로 공인중개사들이 군산부동산협동조합(KRC)을 설립했다. 이 협동조합은 4월 27일(목) 군산부동산협동조합(KRC)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산지역 1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군산부동산협동조합(KRC)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고객의 맞춤형 투자 상담 ▲국가 산단 활성화를 위한 공장 및 토지거래의 적극적인 방법 강구 ▲원도심이나 골목상권의 재개발 투자컨설팅 ▲소상공인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군산지역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정보를 빠르고 정확한 제공 ▲공인중개사 창업 지원 등 군산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돌아오는 5월22일(월)에는 명지대 부동산학과 경영익교수를 초빙해 군산시립도서관 강당에서 조합원 110여명이 오후2시부터 오후8시까지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군산부동산협동조합(KRC) 초대 서은식이사장은 뉴욕의 부동산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그래서 매달 월 1회 자체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다각화와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6월 단상(斷想)

## 폐지 줍는 노인은

땅거미 깔리는 도심 속 거리  
고달픈 삶을 쌓아 놓은 듯  
손수레에 폐지를 수북이 싣고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의 모습에  
뭔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오고  
우리의 아픈 역사가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일제 강점기의 시련  
6.25전쟁 때 피난살이  
보릿고개의 굶주림을 용케도 견뎌낸  
노구의 한 방울 남은 기력마저  
쏟아내도록 거리로 내몰고 있다

오늘 날 우리는  
생사를 넘나드는 민족의 시련 때마다  
강철같이 극복해온  
저 노인 세대의 값진 희생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가난은 각자의 몫인 양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

성직자의 고행과 같은 삶을 이어가는  
슬프고도 강인한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언제 편하게 살아본 적이 있었어야지  
바람이 있다면  
그저 자식들 건강하게 잘 살고  
남한테 짐 안 되게 살아가는 것이지”

글 | 이희찬(상임고문)  
lhc-good@hanmail.net





## ■ 새만금개발속도 빨라진다.

문재인 대통령 군산에서 치른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 밝혀



길이 33.9km, 평균 높이 36m로 세계 최장의 방조제이자 새로운 국토의 장인 새만금,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행사가 전북 군산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함께 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라는 주제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해양수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인류의 미래가 달린 바다를 잘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여 새로운 기회의 땅인 새만금을 활용한 해양 르네상스 시대를 일으킬 것을 결의했다. 이날 기념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새만금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이 그려진다"고 전하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새만금 관련 사업을 직접 챙겨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운·조선산업은 대한민국의 제4차 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다"라며, "해운·조선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한국해양산업금융공사를 설립해 체계적·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31일 개최된 기념식에 이어 오는 6월 4일까지 새만금 신시항 일원에서 진행되는 바다축제는 군산항 개항 118주년을 주제로 한 전시를 비롯해 카약, 요트 같은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마한가지로 4일까지 아미도의 다기능부지에서 진행될 제1회 새만금 노마드 축제는 유채꽃과 함께 즐기는 야외캠핑장 체험과 불꽃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유목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에서 열리는 이번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그 동안의 바다의 날 기념행사 중 가장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만금 중심도시 군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 신항 등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을 통해 환황해권 국제 물류 거점도시, 그리

고 해양관광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21세기 신해양수산업 발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한편 바다의 날은 1994년 11월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특정 일을 지정해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날인 5월 3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해마다 정부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 ■ 군산시-전주영상위원회와 업무 협약체결, 영화산업 발전 기대

상호협력관계 구축 기반 마련, 다양한 국내외 영화 촬영 유치 활성화 기대

군산시는 지난 26일, (사)전주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정병각)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영화유치 활동에 뛰어들었다. 최근 군산이 영화촬영의 명소로 각광받는 가운데 시의 영화촬영 유치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성과로 주목되는 만큼, 향후 영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파급력을 발휘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 면담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전북도 내에서 촬영되는 각종 국내외 영화 유치활동과 로케이션 지원을 총괄하는 전주영상위원회와 전북도 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체결된 협약으로써, 시에서는 하반기부터 영화촬영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관련예산 확충을 통해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영상위원회 정병각 운영위원장은 "군산은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사가 촬영을 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전하며, "이번 협약체결을 기반으로 군산시와 상생발전을 통해 전북 영화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영화 촬영을 통한 지역 홍보효과와 관련 영화산업 발전,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전주영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산만의 영화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은 1948년 이만홍 감독의 영화 '끓어오른 향로' 촬영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130여편의 영화가 촬영되었으며, 올해에만 대형기획사가 제작에 참여하는 10여편의 영화 촬영과 함께 각종 TV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장소 섭외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군산시 문화예술 블로그기자단, 문화재해설사 위촉식 열려

분야별 역량 강화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가로 거듭난 47명에게 위촉장 수여

군산시는 시의 문화예술분야 부흥과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한 '군산시 문화예술블로그기자단'과 '어린이·성인 문화재 해설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에서는 군산대학교e-Biz센터(센터장 임용택교수)와 함께 손을 잡고 창단한 '군산시 문화예술블로그기자단' 대학생 16명과 문화재 양성교육을 수료한 '문화재 해설사'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지난 26일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군산시 문화예술블로그기자단'은 다양한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SNS 등)의 접근성·확산력을 활용하여 군산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자원과 여러 지역자산에 대한 소식을 발굴하고 현장취재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며, 시에서는 군산대학교의 지도아래 전문적인 역량강화 교육과정과 피드백을 거쳐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위촉된 '어린이·성인 문화재 해설사'는 올해 초 고교를 통해 모집된 희망자를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양성교육을 수료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31명(초등학생 18명, 성인 13명)의 해설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군산의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역사·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5월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현장 해설사로 활동함으로써 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는 군산야행(夜行) 행사기간 동안 문화재 현장에서 해설사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아이들의 시각에서 군산시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현장 설명으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위촉식에 참석한 블로그기자단 지도를 맡은 군산대학교e-Biz센터 임용택 교수는 "앞으로 군산시와 함께 블로그기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문화예술, 관광자원과 지역소식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군산시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블로그기자단과 문화재 해설사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제3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발대식 개최

국제교류 전문가 특강을 통한 군산시 통역봉사자 역량강화 힘써

군산시는 국제화 역량 강화와 통역봉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0일 '제3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4월 새롭게 구성된 외국어 9개 언어권의 통역 봉사자 6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의 통역활동과 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참석자들 간 화합과 소통으로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간담회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특강은 정희상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가 세계화 시대에 있어 통역의 언어성과 문화성에 관한 주제로 직접 강의해 참석자들에게 강한 동기 부여와 유용한 정보 습득의 계기가 되었으며, 김종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계장으로 부터의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특강을 통해 군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참석자들에게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에서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체득한 경험 이 실제 국제교류 행사에서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역봉사자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는 외국어에 능통한 군산 시민들로 지난 3월부터 서류신청과 면접심사를 거쳐 9개 언어권에 63명이 선발되었으며 주부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군산시는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를 모집해 통역 인력 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발된 통역봉사자들은 각종 국제 행사와 축제, 외국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시 통역지원, 관내 기관과 기업체의 기업 활동을 위한 통역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외국어 통역 지원이 필요한 군산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등은 군산시 새만금국제협력과(☎ 454-2623)로 문의하면 된다.



## ■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 화가 이중섭이 게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

김봉하 이중섭미술관 해설사가 전하는 화가 이중섭의 삶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itel.net



서귀포의 상징 천지연 폭포. 높이 22m 너비 12m이다. 폭포아래 못(淵)은 깊이가 20m에 이른다. 연못 속에는 신령스러운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과 가을왔을 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삼다삼무(三多三無)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아래 제주도)에 다녀왔다. 숙소는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위미항) 해변에 잡았다. 이튿날 아침에는 육지의 유채꽃과 수평선 너머로 납작 엎드린 섬, 지귀도를 조망하며 올레길을 따라 산책했다. 지귀도는 주민들이 농사와 어업을 하면서 살았으나 4.3 항쟁 이후 무인도가 됐다.

제주도에서 만난 '남원'이란 지명은 고향친구처럼 반가웠다. 침샘을 자극하는 메뉴에 끌려 들어간 '전복뚝배기' 전문식당 주인아주머니는 "전복 남원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여서 생겨난 것 같다"며 활짝 웃는다. 아주머니 이야기가 근거 있는지는 뒤로하고 거리의 이정표를 보니 전복 남원(南原)은 '근원 原'을 쓰는데 제주도 남원(南元)은 '으뜸 元'을 썼다.

## 아름다움과 아픔이 공존하는 제주도

제주도는 예로부터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 해서 삼무도로 불렸다. 처음 방문은 1982년 2월, 그 후 갈 때마다 경관이 낯설고 이국적이어서 더 좋고 새롭게 느껴지는 섬이었다. 그런데 개발이 너무 많이 이뤄져 정낭(집 입구 양쪽 돌기둥에 걸쳐 놓은 나무) 보기도 어려웠다. 전통시장에서도 소박하고 질박한 사투리를 들을 수 없었다.

삼국시대 '탐라국'이었던 제주도. 그래서 그런지 육지와는 뚜렷이 다른 역사와 문화가 전해진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1950m)을 비롯해 하늘이 반사되는 쪽빛 바다, 검은 현무암 해안, 폭포, 돌담, 돌하르방, 유채꽃 등 자연 풍광도 뛰어나다. 행정구역상 가장 작은 도(道)이자 가장 큰 도(島)이면서 질펀하게 펼쳐지는 갯벌과 눈이 없는 것도 이 섬의 특징이라 하겠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에는 신혼여행의 보금자리로, 아름다운 환상의 섬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과 원망, 아픔이 서린 섬이기도 하다. 하루하루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험악했던 시절도 있었다. 일제의 수탈과 착취, 미·군정 치하에서 일어난 4·3항쟁 역사는 주민들에게 남다른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제주도는 육지에서 아주 먼 변방임에도 이곳을 거쳐 간 문화, 예술인도 많다. 피난 시절, 이별의 아픔을 그린 가곡 〈떠나는 배〉(양중해 작사, 변 훈 작곡)가 제주에서 만들어졌다. 소설가 계몽묵은 양담배 노점상을 하며 〈흑산호〉(제주도 첫 문학동인지)를 창간하였고, 화가 이중섭은 초

천재 화가 이중섭이 살았던 집 입구.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습과 문화를 나타내는 정낭이 보인다. 나무 하나만 걸쳐있으면 금방 돌아와요, 두 개 걸쳐있으면 저녁에 와요, 세 개면 멀리 외출했어요, 하나도 걸쳐있지 않으면 사람이 있다는 표시라고 한다.



종아니의 발길 닿는 대로



가 단칸방에서 바닷가 계와 뒤엉켜 노는 아이들 그림을 그리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고 전한다.

#### 고은 시인 “이중섭은 흙모의 대상이 됐던 인물”

“그는(이중섭은) 판잣집 골방에 시루에 끼어서도 (그림을) 그렸고, 부두에서 낚시를 팔다가 쉬는 참에도 그렸고, 다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도 그렸고, 대폿집 목로판에서도 그렸고, 캔버스나 스케치북이 없으니 합판이나 맨종이 또는 담뱃갑 은지(銀紙)에도 그렸고, 물감과 붓이 없으니 연필이나 못과 송곳으로도 그렸고, 먹을 것과 잘 곳이 없어도 그렸고, 외로워도 슬퍼도 그렸고, 부산, 제주, 통영, 진주, 대구 서울 등을 떠돌면서도 그렸다...”

구상(具常) 시인이 1980년 2월 어느 신문에 밝힌 회고다. 이중섭과 구상 시인은 고향 친구로 알려진다. 구상 시인은 “그를(이중섭을) 너무나 잘 아는 나보고 말하라면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겠다. 왜냐면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생존의 목적이나 수단은 오직 그림뿐이었고, 그를 살게 하고 죽게 한 것도 오직 그림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고은 시인은 1973년 펴낸 <이중섭 그 예술과 생애>와 한자 투성이의 초판을 대폭 손질해 1999년에 내놓은 <화가 이중섭>(민음사)을 통해 “이중섭은 한국 화단의 어느 유파(流派)에도 속하지 않고 홀로 회화(繪畵)의 한 정점을 구현한 화가였다”며 “이중섭은 화가 지망생이었던 나에게 흙모의 대상이 됐던 인물이었다. 그는 한 시대의 신화를 만들어낸 화가였다”고 평한다.

#### 불같은 예술혼 담긴 ‘이중섭 거리’

제주도 서귀포시는 1997년 이중섭이 살았던 초가를 복원하여 기념관으로 개방했다. 특별전도 개최했다. 그의 불같은 예술혼이 담긴 ‘이중섭 거리’도 조성했다. 2002년에는 ‘이중섭 전시관(미술관)’도 개관했다. 이중섭이 서귀포에 머문 기간은 고작 11개월 남짓(1951년 1월~12월). 그런데도 주변 상가 간판과 하수도 맨홀 뚜껑 등에 ‘이중섭 문화의 거리’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 놀라웠다.

이중섭이 가족(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살았던 초가는 아담하고 고즈넉했다. 위치도 청갯빛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동산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살림 공간은 콧구멍만한 방(1.4평)과 부엌(1.9평)뿐. 이토록 좁은 공간에서 네 식구 지내기가 가능했는지 의아심이 들었다. 식량도 배급으로는 연명할 수 없어 썩을 깨거나 김(게)와 고구마를 삶아 먹었다고 한다.

이중섭미술관에서 만난 김봉하 해설사는 “당시 가족은 아내 이남덕(李南德) 장남 태현, 차남 태성 등 네 식구였다. 아내 이남덕의 일본 이름은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子)였다”면서 주로 소(牛) 그림을 그렸던 이중섭이 집 주인 부부의 부탁을 선뜻 받아들여 초상화를 그려준 사연과 그의 작품에 유달리 게 그림이 많았던 이유 등을 들려줬다.

“이중섭은 서귀포 피난 시절 바닷가 계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 미안한 마음에 계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그려 달라’고 해도 미룰 정도로 일반 초상화 그리기를 싫어했는데, 방을 내준 집주인에게는 선뜻 그려줬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기꺼이 붓을 들었던 것이지요.

이중섭이 어린아이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는 유아기(1946)에 디프테리아로 죽은 큰아들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에서 연유한다고 합니다. (전시실) 저쪽에 걸린 이중섭 자화상 역시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그렸다고 하더군요. 작품집, 평전, 언론보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사진은 담뱃불 붙이는 모습을 허중배 사진작가가 찍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중섭은 화가이면서 글쓰기에도 소질이 뛰어났다고 전해지죠.”

#### 자신의 대표작 <황소>만큼이나 역동적이었던 작품 활동

김 해설사 설명에 따르면 이중섭(1916~1956)은 평안남도 평원군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사과를 주면 그림을 그리고 먹었을 정도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는 1907년 남강 이승훈 선생이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한 오산고보에 들어가 임용련(任用璉) 도화(미술) 교사에게 지도받는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미술학교(문화학원)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子)와 사랑에 빠진다. 광복되

던 해(1945) 마사코가 대한해협을 건너와 이남덕(李南德)으로 개명하고 결혼식을 올린다. ‘남덕’의 의미는 ‘덕이 많은 남쪽 여인’이라는 뜻이란단.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해 12월 가족(부인과 두 아들)과 함께 유엔군 수송선을 타고 피난, 부산을 거쳐 서귀포에 정착한다. 그리고 <서귀포의 환상> <섬섬이 보이는 풍경> <바닷가와 아이들> 등 보석 같은 작품들을 남긴다. 거주지를 다시 부산으로 옮긴 후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작품 활동에 몰두했던 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술로서 달래다가 1956년 9월 청량리 적십자병원에서 고난으로 접철된 생을 마감한다. 그해 그의 나이 마흔하나.

오산학교 동창 도움으로 부산 범일동 판잣집에서 제2의 피난 생활을 시작했던 이중섭. 그는 동료 예술가들과 어울려 다방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음악이 흐르는 다방 구석에 앉아 삼화를 그렸고, 담뱃갑 속 은박지를 모아 볼펜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다. 파인 곳은 ‘세피아’(sepia)로 채색했다. 그렇게 피난지 다방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그림에 몰두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배고픔을 견뎌냈으리라 추정해본다.

평안도에서 태어나 고향에 부모·형제를 두고 떠나왔음에도 그림만을 사랑했고, 그림 때문에 고뇌했고, 그림을 그릴 수 없음에 가슴을 치다가 마흔한 살에 생을 마감한 천재 화가 이중섭. 그의 한평생은 너무도 비극적이었다. 그림에도 피난 시절 작품 활동은 자신의 대표적인 황소 그림만큼이나 역동적이었다. 은박지에 그린 소품과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따뜻하고 참된 인간의 심성(心性)을 느낄 수 있었다.



이중섭이 살았던 집을 복원한 초가. 지금도 주인이 살고 있으며 그늘아래 대청과 넓은 마당이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 알파고와 치과의사

작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엄청난 관심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파고와 커제의 대결은 역시나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이 나면서 세상이 이만큼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세돌과의 대결 뒤에 알파고는 계속해서 자체학습을 하여 실력을 키웠고, 더욱 강력해진 알파고에 대항하는 인간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는 것으로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대 컴퓨터의 바둑 대결에서 인간은 참패를 면치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알파고 측에서는 더 이상 무의미한 인간과의 바둑 대결을 하지 않겠다고, 대신 인간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5월 현재의 세상은 이러합니다. 세상은 또 다른 격변기에 이미 들어서 있는 거지요.

치과 칼럼에 웬 알파고와 바둑 얘기일까 의아하셨지요? 치과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이 퇴출되리라 예상되는 직업들을 꼽아보면, 기자, 교사, 주식 펀드 매니저, 내과의사 등을 우선순위에 올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인공지능에게 인간 의사가 자리를 곧 내주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치과의사는 어떨까요? 이 질문에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은 바로 치과의사이겠지요. 저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에서 인공지능이 사

람을 대체하는 데에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밀려나는 직종 상위에 올라온 것들의 공통점은,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직업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치과의사는 머리로 치과의학 지식을 학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뇌에 담겨 있는 지식을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환자분들의 치과 공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표정과 말투, 대화 등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성능 좋은 컴퓨터에 최고의 정교한 로봇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환자분들의 치과 공포를 완화시키고 더불어 기계에게 자신의 입안(생명)을 맡길 수 있게 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공지능 치과의사가 인간 치과의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더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인간 치과의사인 저는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보다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 자신은 머릿속의 치과의학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가? 정교한 손의 작업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주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가? 환자분들의 치과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음.....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 공시지가 하향요구 봇물

지난 5.31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2017년 공시지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는 그대로 인데 매년 공시지가만 상승하다보니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도 오르게 될것을 우려한 것인데, 우선 공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흔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공시지와 실거래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그 의미 그대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반면,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값을 매겨놓은 것입니다.

과거 공시지가는 시세의 50~60%선에서 결정되었으나 정부는 각종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되는 시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매년 공시지가를 상승시켜왔고, 올해도 전국 평균은 4.94%, 서울 5.46%, 수도권 4.40%, 광역시 7.12%, 기 타지역 6.02%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격이 지역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른 지역은 제주도와 부산, 세종시인데 제주



도가 18.66%, 부산이 9.17%, 세종시가 7.14%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세금 부과를 통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꾀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개별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시세는 변동이 없는데 세금만 늘어나니 불만일 수밖에없습니다.

거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는 달리 토지는 소유 형태가 다양합니다.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라면 공시지가 상승이 토지가치가 상승했다는 증거일수 있지만,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쓸모없는 나대지, 중종재산, 상속받는 토지같이 앞으로도 장기간 매도 계획이 없거나 매각이 안되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은 당장의 세금부담만 증가시킬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의신청 대부분이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60%가 가격 인하 요구이고요. 앞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을 보시면 제주도, 세종시 등에서는 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비율이

80~90%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되는 시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이러한 가격 상향조정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보유세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세금부담에 대한 조정요구 민원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세는 변동이 없는데도 공시지가만 현실화되면서 토지보유세만 증가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Q.** 나운동에 사는 김 은미라 합니다. 새로 이사한 전셋집이 비가 새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둑이 침입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제가 먼저 집을 수리하고 방범창을 설치한 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A**

전세계약을 해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또 절도를 막기 위한 방범창 등 살아가는데 부가적으로 필요한 물품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민법 제623조는 부동산 수리비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도중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의무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의 종료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임차물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필요한 수선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 정한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그 수선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하면 될 것입니

다. 만일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게 되겠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수리를 요할 경우에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은미씨의 경우는 수리해줄 것을 통지한 후 수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거나 임대료 지급 거절, 임대료 감액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임대료의 일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인 은미씨가 직접 수리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수선을 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에 관한 수리비라면 집주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입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경우, 벽이 갈라져 찬바람이 들어오는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세입자는 먼저 수리를 한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하면 됩니다. 비용 청구는 계약기간 중 뿐 아니라 계약이 끝난 후 6개월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둑을 맞을까봐 걱정되어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현관 열쇠를 첨단 디지털 기기로 바꾸는 등의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법원은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수익에 그치고,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둑을 예방하는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범창 등을 자기 비용을 들여 설치했다고 해도 집주인에게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646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의문점이 해결되었지요!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 여럿이 한마음으로 함께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언 기취여란)

두 사람이 한 마음  
이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고,  
뜻을 같이 하는 말은  
난초의 향기와도 같다.

출전:[周易](주역)  
繫辭傳上(계사전상)]



두 사람 마음을 합치면 그 견고함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말하게 되면 그香氣가 마치 蘭草와 같다. 주역에 나오는 말로 두 사람의 가까운 사귀를 빗대어 쓰이는 말이다. 가끔 뭘 소리여? 둘이 마음을 합한다고 쇠를 끊을 수가 있단 말 이어? 하는 지극히 물리화적인 반론에 부딪치곤 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9일 장미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다.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의미 “10년간의 귀향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복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을 했다. 어쩌면 지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뒷걸음친 우리 역사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당선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한 것이기 보다는 마치 4대강사업으로 물길 막혀 강바닥이 오염되어 썩고 고기가 죽어 떠오르고 보도, 들도 못한 생물체가 서식 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서서히 알아가듯,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쌓여온 비리와 부정이 온 세상에 드러나, 보지 않으려 해도 눈에 띄고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에까지 국정을 몰고간 사람들을 향한 온 국민의 햇불 같은 촛불, 무려 연인원 1,700만명이라는 국민이 순수하게 밝혀든 개혁의 염원의

일단락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의미 일 것이다.

물론 주요공약으로 내건 10개 항목,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책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 재벌개혁,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청년 꿈 지키는 대한민국, 성평등한 대한민국, 어르신 행복한 대한민국, 아이 키우는 좋은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이 모든 공약이 완벽한 성과를 내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어쩌면 몇 걸음 뒷걸음 친 우리 역사를 과감히 바로잡아 정상의 걸음걸이로 바뀌줄 것이라는 기대는 충분하지 않을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면 쇠도 자를 수 있다’는 주역의 고사성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데 모이면 바꾸지 못하고 다다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일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임기 개시와 더불어 발표한 시험적인 인사와 뜻한 공약대로의 개혁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 국민의 관찰과 판단일 것이다. 한 번 넘어져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 더 이상 상처 받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구나 같기 때문이다.

하순의 오월, 마침 맑은 하늘이 열려 숨쉬기 좋은 날이다.

글 |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바다의 날 특별기획전 ‘수탈의 바다, 그날의 기억’展 개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2017년 바다의 날을 맞아 ‘수탈의 바다, 그날의 기억’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29일부터 문을 연 이번 전시는 일제의 침략이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바다를 빼앗김으로써 끝내는 육지마저 잃게 되었다는 이제와는 색다른 시각의 주제로 기획되었다.

전시공간은 본 전시인 ‘수탈의 바다 그날의 기억’과 보조 전시인 ‘바다 위 신神들의 전쟁’, 체험공간인 ‘바다놀이터’ 총 세 곳으로 구성하였다. 본 전시 ‘수탈의 바다 그날의 기억’은 총 5부로 진행되는데, 서해안 최고 항구였던 군산이 겪어야 했던 수산업 침탈의 역사를 100여점의 자료와 영상물로 선보인다.

주 전시장의 구성을 보면, 1부 ‘바다에서 시작된 빼앗긴 역사’에서는 풍요로웠던 서해안의 어장과 전통어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2부 ‘파도아래 드리운 수탈의 그림자’에서는 일본에 의해 우리 바다가 겪었던 침탈의 역사를 일본의 각종 지도와 보고서를 통해 소개한다. 3부는 ‘빛과 그늘사이, 군산항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우리고장 군산이 겪었던 수산업 침탈과 그 역사를 직접 겪은 신시도, 무녀도의 주민의 인터뷰 영상 자료를 함께 만날 수 있다. 4부 ‘바다에서 펼쳐진 항쟁’에서는 일본을 향한 우리어민과 군산객주들의 저항을 함께 보여주며, 5부 ‘

오래된 미래, 고군산군도’에서는 바다와 오랜 역사를 함께한 군산과 오늘날 군산의 바다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생활유물들이 공개된다.



보조전시 공간으로 구성된 ‘바다 위 신神들의 전쟁’은 우리나라 주요 항구에 세워진 일본 이주어촌과 일본어민들이 들어온 곤피라신사를 통해 억압당한 우리바다의 토속신앙을 조명한다. 빼앗긴 역사 속에서도 우리바다를 지켜온 토속신과 바닷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용왕굿, 중동 당제, 개야도 당제 등 군산지역의 토속신앙을 각종 시청각자료로 만날 수 있다.

전시장 도입공간에 배치된 ‘바다놀이터’는 전시와 연계된 체험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전통한선에서 근대기 안강망까지

다양한 어선들의 모형을 실물로 접할 수 있으며, 바다에 띄우는 소원쓰기, 서해안의 고기잡이 스크린터치 체험 등 각종 핸드온 활동이 마련되어 흥미롭게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근대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군산시가 해양수산업 및 국립해양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군산해양수산업청, 군산수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청 등 많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특히 오는 7월 군산에서 진행되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와 연계해서는 해양과 근대도시 군산의 면모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가 우리고장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바다가 겪었던 근대수탈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고자 전국 최초로 기획되었다”며 “이번 전시가 근대기 우리바다의 역사 전반을 둘러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여명이 방문하였고,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전국 버스커즈들의 열정의 무대! 버스커즈 IN 군산 시즌 4가 열린다.

- 자유路, 청춘路, 열정路, 개복路, 버스커즈들의 최강무대 -

전국에서 모여든 버스커즈들의 열정의 무대가 지난 5월 13일(토)과 14일(일) 2틀에 걸쳐서 군산시민예술촌이 위치한 예술인의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버스커즈 참가팀 20팀중 락밴드와 어쿠스틱밴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8팀이 다음날인 본선무대(중앙주차장)에서 결선무대로 이어진 버스커즈 IN 군산(시즌 4)는 우리 지역의 ‘영준밴드(군산대 혼성밴드)’의 창작곡 ‘타잔의 노래’와 1곡을 불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최우수상에서는 수원지역의 레이버(락밴드), 우수상에서는 대전지역의 오빠딸(어쿠스틱밴드), 장려상에는 서울지역의 잉카프로젝트팀(어쿠스틱밴드)이 각각 선정되었다. 총상금 5,000,000원을 걸고 진행된 ‘버스커즈 IN 군산(시즌 4)’은 그 어느때보다도 열정적인 무대로 참여하여 지역민들과 버스킹 애호가들에게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더불어 또 다른 즐길거리로 개복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의 창작품, 군산시민의 아나바다, 공예인들의 공예품과 지역특산품등 다양한 플리마켓이 더불어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버스킹 공연을 통하여 열정이 가득찬 청년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 도모와 참여와 연대, 교류로 시대 흐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문화확산의 틀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버스커즈 IN 군산’ 경연은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수개월간의 본 예술촌과 협업하며 홍보부터 자원봉사, 기획, 참여방식 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론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이기에 더욱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군산시민예술촌은 ‘버스커즈 IN 군산’으로 생기넘치는 도시 문화 형성에 노력을 할 것이며 청년문화와 지역이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 혁신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활기찬 군산, 문화가 흐르는 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버스커즈 IN 군산’은 금번 상반기 대회의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 시즌 5를 준비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전국의 버스커즈들을 불러 모을 예정이다.



군산시민예술촌  
GUNSAN CITIZEN ART VILLAGE

군산시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 자치는 리더들의 활동이 시작된 날

5월14일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는 Leadership Training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획, 준비하는 대표자회 회장, 부회장들부터 각 자치기구 임원들까지 각 자치기구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모였습니다. LT는 대표자회 임원회와 활동논의, 416 기억하기 선언문 정리, 임시총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대표자회 부회장인 건규와 예리는 청소년 자치기구 임원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름 빙고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빙고판에 이름을 적기 위해 서로 악수를 하고, 함께 셀카를 찍고, 슬리퍼를 바꿔 신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표자회 회장인 기쁨이는 달고나<sup>1)</sup>의 공약을 임원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대표자회로 당선이 되었지만 공약을 바탕으로 임원들에게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달고나의 공약은 지역사회 모니터링, 청소년참여포럼, 청소년 정책제안 등의 사회 참여 활동과 달그락 청소년들을 위한 의견수렴, 안전상징, 문제해결 과정 등의 소통 활동이 있습니다.

공약 발표와 함께 기쁨이는 각 자치기구별 연합활동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를 제안했습니다. 자치기구 임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안내했습니다. 각 자치기구 간 활동 중 연결 가능한 내용을 살펴보고 연합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어요. 청소년 임원들은 용기내어 다른 자치기구 친구들에게 제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활동에 동의하거나 고려해보는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기자단은 프리마켓 자치기구의 활동 전 후의 인터뷰 기사기고를, 인권 자치기구는 전체 연합회에 인권캠페인과 토론회를 제안하였습니다. 경제경영 자치기구는 프리마켓 활동과 자원활동을 연계하는 것을 제안하고 인문학 자치기구는 작가단과 함께 책제작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치기구별 임원들은 자신이 이끌어 가는 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연간 계획이 무엇이었

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팀별 제안들이 많아 당일에 모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자회에서 전체 연합활동을 정리하고 그 외 자치기구간 연합은 연결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달그락의 임원들은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여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하였습니다. 대표자회 청소년들이 이 내용을 선언문으로 작성하였고 임원들이 다시 확인 및 수정, 보완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언문 몇 쪽을 위해 30여명의 청소년들이 선언문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토론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라진 삶을 생각하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리더인데’라는 고민이 들었을까요? 저녁 식사 후 이어진 임시총회는 더 진지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청소년수가 많아졌습니다. 대표자회 임원들의 역할, 전체 임원들의 부서 선정 및 역할 분담, 회비 납부 및 관리 등의 회칙수정을 진행하였고, 각 자치기구별 연락망의 상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안내와 전체 청소년들 활동의 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5시간이 넘어가는 장시간 논의에 지칠 법도 한데 연합회 회장은 곳곳이 서서 진행하고 서기 하함과 소영이는 끊임없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임원들의 말이 많아지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자치는 리더들의 활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1) 청소년 대표자회에 당선되기 위해 청소년들은 팀을 꾸리고 선거활동을 진행합니다. 당선된 팀 이름이 달고나이며 우리나라의 정당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 명주가 시집가는 날

근대에 이르기까지 신부의 혼수품 중 중요한 것이 옷감과 신부의 사계절용 저고리였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모든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에 특히 명주 저고리는 서민들에게 귀한 혼수였다.

명주는 현재는 무형문화재 87호로 지정되어 겨우 명맥을 이어나가는 수준이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명주실을 얻기 위해 누에치는 집이 많이 있었다.

어린 시절 전라도 장성의 할머니 댁에 가면 솜씨 좋은 할머니와 쪽진 머리의 큰어머니가 베틀에 앉아 명주를 짜셨다. 누에가 사는 잠실에서 잘라치면 사각사각하며 뽕잎을 먹는 소리가 나고 기어 내려올까 무서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잤지만 고치속의 번데기는 신기했다.

오랜 세월동안 어머니들은 직접 목화를 심고 누에를 키웠다.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물들여 옷을 지어 가족에게 입히고 자식의 혼수를 했다. 혼례 때 신부 집에 보내는 함속에는 평생 간직할 사주와 혼서지를 보통 명주 보자기로 짜서 넣었다. 예단으로 넣는 청홍 채단은 청홍색으로 물들인 명주실 타래를 동심결로 묶어서 담았다. 이 청홍 명주실은 아기가 돌이 되면 장수를 비는 마음으로 돌잡이로 상에 올려졌다. 입는 이를 섬기고 위하는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담아 짠 명주옷감은 시

아버지의 두루마기와 시어머니의 치마가 되기도 하고 태어난 지 백일이 된 아이의 저고리가 되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희망은 누구나 가지고 결혼을 한다.

혼수 문화가 많이 바뀌어 베를 짜서 옷감을 혼수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은 자동차나 아파트, 값비싼 패물과 고급 가전제품, 명품 예단들이 좋은 혼수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씨실과 날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엮어 짜놓은 상태를 조직이라고 한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색의 실을 섞어서 무늬를 넣어서 짜기도 한다.

우리는 혼인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고 가족은 하나의 조직이 된다. 가정이라는 조직을 짤 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넣어서 짜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

우리의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담아 베를 짜던 그 마음을 헤아려 넣어보면 어떨까?

이미숙  
차림문화원 대표 복식 수석큐레이터  
010-5284-7503



두리실 명주 중요 무형문화재 87호 기능보유자 고 조옥이 할머니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GUNSAN CALENDAR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어린이뮤지컬<br>『아라비안 나이트』<br>Piano Duo, 바로크<br>에서 현대음악까지<br>군산예술의전당      | 2017 이문세 콘서트<br>- 전주<br>전북도립국악원<br>기획공연<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17 제11회 유망<br>청소년음악회<br>군산예술의전당 |
|                                                                   |                                                            |                                                                                       |                                                                           | 전북도립국악원<br>기획공연<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17 이문세 콘서트<br>- 전주<br>노스트로필하모닉오<br>케스트라 정기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어린이뮤지컬<br>『피노키오』<br>군산예술의전당                                       |                                                            | 뮤지컬 '레인보우<br>합창단'<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고은합창단 제2회<br>정기연주회<br>군산예술의전당                                             | 영아티스트 콘서트<br>이수진 플루트<br>독주회<br>2017년 청소년 글로<br>벌 리더십포럼<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제16회 사랑의 대<br>음악회<br>군산예술의전당                                           |                                   |
| 코리아오카리나 챔버<br>오케스트라 제5회<br>정기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뮤지컬 '레인보우<br>합창단'<br>제25회 EBONY &<br>IVORY 정기연주회<br>목요국악예술무대<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양상별 APM 제5회<br>정기연주회<br>소리신 여성합창단<br>정기연주회<br>성시경의 축하- 전주<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작은 음악회<br>군산예술의전당                                                 | 뉴스스와 함께하는<br>[막심 페도토프&<br>갈리나 페트로바]<br>듀오 콘서트<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어린이 인형음악극<br>갈갈나무<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군산시립합창단<br>제91회 정기연주회<br>어린이뮤지컬<br>『장화신은 고양이』<br>군산예술의전당                  | 어린이뮤지컬<br>『장화신은 고양이』<br>군산예술의전당                                     | 20th Remember &<br>New Start<br>군산예술의전당                                |                                   |
| 이든예술기획<br>초청 스킨 클래식<br>시리즈 V<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매직스크린 가족극<br>오버코트<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매직스크린 가족극<br>오버코트<br>가족힐링뮤지컬 우리<br>아이가 달라졌어요<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뮤직포유 초청음악회<br>PM. 7:30<br>은파물빛다리 광장<br>가족뮤지컬 공룡이<br>살아있다<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어린이 미술 콘서트<br>군산예술의전당                                             | 어린이뮤지컬<br>『이슬 이야기』<br>군산예술의전당                              |                                                                                       | 목요국악예술무대<br>군산예술의전당                                                       | 기획공연 뮤지컬<br>영웅<br>군산예술의전당                                           | 기획공연 뮤지컬<br>영웅<br>군산예술의전당                                              |                                   |
| 가족뮤지컬 공룡이<br>살아있다<br>베스트스트링챔버<br>오케스트라 제11회<br>정기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 스테판 피 재키브&<br>지용 리사이틀<br>김은미 유주아 듀오<br>리사이틀<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 젊은광대전 창극<br>심청전<br>군산예술의전당                                        |                                                            | 제16회 한국전통문화<br>고등학교 한국음악과<br>정기연주회<br>문화가 있는 날 작은<br>음악회 '낫달' -<br>극단 명태<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군산시립교향악단<br>제125회 정기연주회<br>군산예술의전당                                        | 전북도립국악원<br>무용단 정기공연<br>'가온누리 밝지'<br>군산예술의전당                         | 전북도립국악원<br>무용단 정기공연<br>'가온누리 밝지'<br>군산예술의전당                            |                                   |
| 제9회 전북레가토<br>색소폰앙상블 정기<br>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전주시립교향악단<br>제221회 정기연주회<br>목요국악예술무대<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제23회 크리피아<br>피아노 앙상블 정기<br>연주회<br>앙상블 피아토 정기<br>연주회<br>한국소리문화의전당    |                                                                        |                                   |



전시

| 군산예술의전당                              |                                                |
|--------------------------------------|------------------------------------------------|
| 2017 공모전<br>2017-06-01 ~ 2017-06-07  | 제17회 사진동인 포커스99 회원전<br>2017-06-03 ~ 2017-06-09 |
| 늘푸름 축제 전시<br>2017-06-08 ~ 2017-06-09 | 군산 여성위원회 회원전<br>2017-06-10 ~ 2017-06-16        |
| 군산미협 정기전<br>2017-06-17 ~ 2017-06-22  | 손에 담긴 이야기<br>2017-06-19 ~ 2017-07-02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 04.04(화)~08.27(일) 상설전시 상상놀이터-색 빛 소리
- 05.19(금)~06.05(월) 제48회 전라북도미술대전
- 06.07(수)~06.09(금) 진로직업체험처 박람회
- 06.20(화)~08.24(목)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
- 06.27(화)~07.03(월) 제16회 매송예술제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정기작품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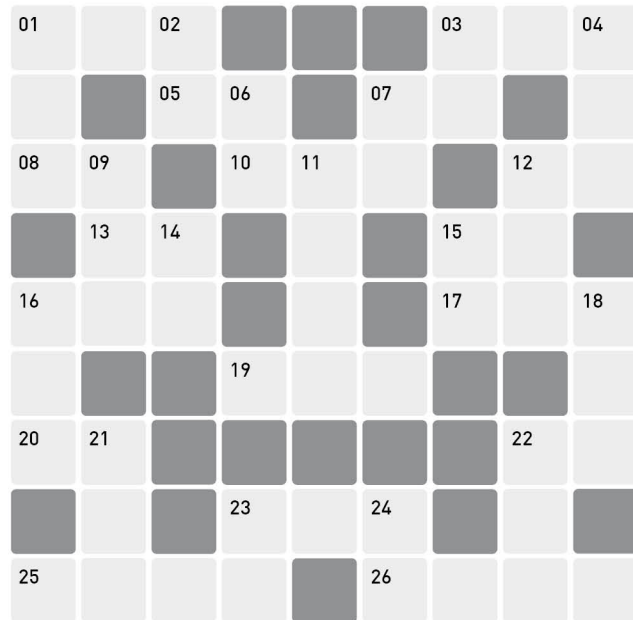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                                             |                                                 |
|------------------------------------------------|---------------------------------------------|-------------------------------------------------|
| 모세스영아원<br>군산시 개정동 413<br>(063) 452-4075        | 구세군군산후생관<br>군산시 신흥동 58-10<br>(063) 445-9331 | 삼성애육원<br>군산시 신창동 7<br>(063) 445-5947            |
| 일맥원<br>군산시 문화동 824-7<br>(063) 462-2385         | 신광모자원<br>군산시 나운동 1242-9<br>(063) 462-7749   | 신광모자자립원<br>군산시 나운동 845-9<br>(063) 461-8572      |
| 구세군군산목양원<br>군산시 회원면 증석리 58-8<br>(063) 466-6088 | 나눔의집<br>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br>(063) 464-9944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br>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br>(063) 466-7981 |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71



<제70호 퍼즐 정답>

|   |   |   |   |   |   |   |   |
|---|---|---|---|---|---|---|---|
| 파 | 안 | 대 | 소 | 스 | 몸 | 비 |   |
| 룻 |   |   | 등 | 골 | 부 | 정 | 맥 |
| 파 | 락 | 호 |   | 조 | 림 |   | 시 |
| 룻 |   | 걸 | 크 | 러 | 시 |   | 어 |
|   | 재 |   |   | 시 |   | 제 |   |
| 비 | 수 |   | 기 | 아 | 임 | 금 | 파 |
| 울 |   | 주 | 지 |   | 수 | 전 | 노 |
| 빈 | 주 | 먹 |   | 누 | 나 |   | 라 |
|   | 해 | 코 | 지 |   | 중 | 전 | 마 |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정답이었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 열쇠

- 01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 03 도량이 좁고 웅졸한 사내.
- 05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이십사절기의 하나.
- 07 죽은 사람의 뉘.
- 08 두 번째로 당선됨.
- 10 손으로 움직여서 사용하도록 된 방식.
- 12 그 사람 자신.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말.
- 13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할 출입.
- 15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 16 1966년에 본격화한 중국 문화혁명의 추진력이 된 모택동 추종 학생조직.
- 17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
- 19 특정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보통의 교사.
- 20 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빛이 없음.
- 22 사람의 성품.
- 23 상하가 분리되어 브래지어와 팬티로 이루어진 수영복.
- 25 최치원의 탄생 설화로 알려지는, 군산시 내초도동에 있는 굴(窟).
- 26 리비아의 수도.

### 세로 열쇠

- 01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
- 02 가격 따위를 낮춤.
- 03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부부관계 풍속을 일컫는 말.
- 04 삶은 국수를 가마에서 건져내는 기구.
- 06 물가노임 등의 시기에 따른 변동율 기준을 100으로 하여 비교하는 숫자. 물가○○. 경기○○.
- 07 뒷사람이나 남의 아들을 높여 이르는 말.
- 09 '선거관리위원회'의 약칭.
- 11 군산과 충남 장항 간 새로 건설된 다리 명칭.
- 12 심리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내면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정신 질환.
- 14 앓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함.
- 15 재주나 힘이 서로 비슷해서 상대가 되는 사람.
- 16 당근.
- 18 밤하늘에 반짝이는 못별이라는 뜻으로, 신분이 높거나 실력자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1 딸의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양쪽 사돈집에서 서로 이르는 말.
- 22 국제형사경찰기구.
- 23 겁이 많고 주대가 없이 천박함.
- 24 뜨개질하여 만든 옷이나 옷감.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COFFEE WINE BEER PASTA SANDWICH



군산시 둔율1길 2 (안동집 옆) T. 070-4152-0466







#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